

# TWO CHAIRS

2022 VOL.52  
JANUARY+FEBRUARY

## SPECIAL THEME

미래를 향한  
움직임

## LIFE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곳,  
두바이

## SENIOR PLUS

우아한 은퇴 라이프를  
완성하는 트렌드

## WEALTH &

2022년 주식시장  
전망



JANUARY + FEBRUARY



## 용맹한 흑호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에너지 가득한 희망을 품어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발 빠른 백신의 보급과 예방접종, 온갖 방역 조치에도 여전히 예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지만,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TWO CHAIRS〉 1+2월호에서는 팬데믹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불어오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이동 수단의 변화부터 공간이 지닌 의미, 라이프스타일까지 미래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 세계 191개국에 보유한 최첨단 기술력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2020 두바이 엑스포'와 개최 도시 두바이를 여행지로 소개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전상부터 미래에 나타날 다양한 신기술과 삶의 방향을 〈TWO CHAIRS〉에서 만나보세요.

# CONTENTS

## 05 Special Theme



- 6 INTRO**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
- 8 EXPERT**  
가속화 O4O와 하이퍼로컬 시대
- 14 INSIGHT**  
모빌리티의 진보가 가져온 도시의 변화
- 20 REPORT**  
공공재로서 건축을 말하다
- 24 IDEA**  
미래를 보는 숫자

## 63 Senior Plus



- 64 LIFESTYLE**  
우아한 은퇴 라이프를 완성하는 트렌드
- 66 GOLF & GOURMET**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 72 GOLF LESSON** ▶  
에이미 조의 골린이도 가능한 '퍼팅의 신' 되는 법
- 74 STAY**  
키워드로 알아보는 실버타운 지침서
- 78 LIQUOR**  
위스키 테이스팅의 정석
- 80 HEALTH**  
건강 상식 팩트 체크

### QR코드 아이콘 가이드

▶  
유튜브 등을 보면서 쉽게 따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접속을 통해 AR 또는 VR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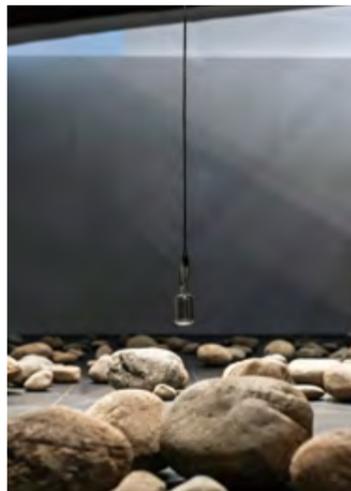
JANUARY+FEBRUARY  
2022 vol.52

## 27 Life &



### COVER STORY

'2020 두바이 엑스포' 메인 구역 중 하나인 지속 가능 구역의 전경



- 28 TRAVEL NOTE**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곳, 두바이
- 36 ART**  
그 실험적 미술의 선구자
- 42 ARCHITECTURE**  
산책하며 감상하는 길 위 예술품
- 48 EXHIBITION**  
범 내려온다, 호랑이나라
- 54 WHAT'S HOT**  
지금은 플랫폼 전성시대
- 58 TREND ISSUE**  
더 나은 일상으로,  
라이프 트렌드 2022

## 85 Wealth &



- 86 INVESTMENT**  
2022년 주식시장 전망
- 94 TAX STORY**  
가업 승계 세금 특례,  
어떤 기업이 활용할까
- 98 REAL ESTATE**  
2022년 부동산시장은 변곡점을 맞을까
- 104 ADVISOR**  
조기 증여,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 108 ART &**  
김수수의 신년
- 112 FOR READERS**

발행 및 편집인 유근석  
발행처 한국경제매거진(주)  
발행일 2022년 1월 7일  
2022년 1·2월호 제7권 제1호  
(통권 제52호)  
디자인·인쇄 한국경제매거진(주)  
등록번호 서울 중 마00097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경제매거진(주)이 우리은행 PB 고객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제작하는 매거진입니다. 격월간 <TWO CHAIRS>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WO CHAIRS>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에 따른 기사입니다.

※매거진 수신 주소 변경·거절 및 우리은행 고객 관련 문의는 거래 영업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Welcome to TWO CHAIRS



## TWO CHAIRS 특화 센터

TWO CHAIRS Exclusive, TWO CHAIRS Premium 센터는  
우리은행의 고품격 자산관리 전문센터입니다.

### TWO CHAIRS Exclusive

<b>TCE 본점센터</b>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우리은행 본점 1층	TEL.02-2002-3316(3312, 3367)
<b>TCE 강남센터</b>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 GS타워 6층	TEL.02-508-3456(내선 310~314)

### TWO CHAIRS Premium

<b>TCP 잠실센터</b>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신천동) 롯데캐슬골드 프라자 2층	TEL.02-412-9082(내선 410, 420)
<b>TCP 대치센터</b>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대치동) 동하빌딩 1층	TEL.02-501-1639(내선 520, 530)
<b>TCP 청담센터</b>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청담동) 신영빌딩 1층	TEL.02-511-4909(내선 410, 420)
<b>TCP 압구정센터</b>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4(신사동) 쌍봉빌딩 8층	TEL.02-541-3473(내선 210, 211)
<b>TCP 이촌센터</b>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00(이촌동) 1층	TEL.02-796-5151(내선 310, 410)
<b>TCP 가산센터</b>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200(가산동) 4층	TEL.02-830-0646(내선 410, 420)
<b>TCP 부산센터</b>	부산시 중구 광복로97번길 11(동광동1가) 2층	TEL.051-257-9960(내선 202, 204)

## TWO CHAIRS 전문 서비스

자기진단, 금융투자, 세무/부동산, 은행/노후설계 등  
우리은행 TWO CHAIRS 특화센터와 함께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세요.

<b>종합 자산관리 서비스</b>	시황전망 및 리스크분석, 해외투자 상담, 자산진단 및 포트폴리오 설계, 국내·해외 투자 상담 등
<b>세무·회계자문서비스</b>	절세(양도·소득·상속), 지방세·간접세·법인세 관련 상담, 가업승계·사업승계 등
<b>부동산자문 서비스</b>	시장분석, 보유 부동산 진단, 부동산 매매 자문서비스, 부동산 개발 컨설팅 지원 등

## Special Theme

### 미래를 향한 움직임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비즈니스가 오프라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출해내고, 인공지능이나 모빌리티의  
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더욱 실감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볼 때입니다.

<p>미래는 오늘날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마하트마 간디</p>		<p>당신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p>
---	---	---

미래를 소유하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요나스 사무엘손 일렉트로룩스 CEO

<p>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피할 수 없으며, 항상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존 그린</p>		<p>인생에서 유일한 싸움은 매달리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싸움이다. -새턴 알더</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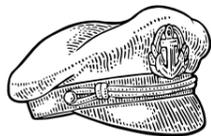
미래는 모든 사람이 1시간에 60분이라는 속도로 다가서는 것이다.  
누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하든.  
-C. S. 루이스

##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

팬데믹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AI 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상상하던 미래 모습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향한 움직임에 대한  
생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p>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윈스턴 처칠</p>		<p>경험은 바보조차 현명하게 만든다. -니체</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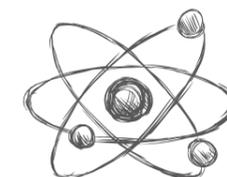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신뢰성과 역사성,  
전통성은 지켜나가야 한다.  
-프레데리크 아르노 테그호이어 CEO

<p>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논어〉</p>		<p>탁월한 지혜를 지닌 사람은 그 기미를 먼저 헤아리고 살핀다. -〈채근담〉</p>
---	---	---

알면서도 모르는 체함은 훌륭한 처세이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것은 병이다.  
-〈명심보감〉

<p>선택을 할 때 미래를 바꾼다. -디팩 초프라</p>		<p>세상살이에 관한 지식은 다만 세상 속에서 얻는 것이지, 책상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양속담</p>
-------------------------------------	---	--

안다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는 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어렵다.  
-〈한비자〉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 지혜가 생겨나지 않는다.  
-〈명심보감〉



## 새로운 비즈니스가 불러온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가속화 O4O와 하이퍼로컬 시대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어놓았다. 특히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 변화의 틈에서 새로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 형태인 O4O의 개념이 대두되고, 우리의 생활 범위와 소비 권역이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이퍼로컬 시대로 전환하는 중이다.

Writer: 김덕진(한국인사이트연구소 부소장)

### O2O 서비스 성장의 한계

모바일 시대 초기에 많은 매체를 통해 O2O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줄임말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렌터카를 호출하거나 숙박 시설을 예약하는 등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이른바 배달 플랫폼 서비스, 택시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부르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하지만 이 O2O 서비스는 분명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과 소비자를 온라인 앱을 기반으로 연결해주지만, 오프라인 매장 입장에서 보면 썩기분 좋은 서비스는 아니다.

일반 O2O 형태 서비스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는 많아도 오프라인 매장의 이익률은 적을 수밖에 없다. 또 온라인의 판매 데이터와 고객 정보 역시 플랫폼이 보유해 O2O 플랫폼에서의 매출이 오프라인으로 연결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O2O 비즈니스 모델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확보한 온라인 고객을 오프라인의 실제 매장으로 연결해 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을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개념이 생겨났다. 하이브리드 오프라인은 O2O 비즈니스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결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으로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O4O라는 용어로도 일컫는다.

### O4O 서비스의 개념

O4O(Online for Offline)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O2O가 서비스 중개 플랫폼이라면, O4O는 온라인을 통해 확보한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집중'시켜 이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던 이커머스업체들이 역으로 오프라인을 통해



차별화를 피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O4O 비즈니스는 O2O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얻은 고객의 구매 패턴, 검색 키워드, 관심사 등 온라인 비즈니스 데이터를 가공해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O2O 서비스를 통해 남은 고객의 정보와 사용 이력 등을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다시 연결시키는 것이다. 확보한 고객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연결해 실질적인 이익률을 높여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Online for Offline, O4O 비즈니스의 핵심 개념이다. 글로벌 IT·유통 기업 아마존은 '아마존GO'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기존 고객의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경험 데이터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18년 1월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1층에 처음으로 오픈한 아마존GO 매장은 계산대가 없고 결제를 기다리는 줄도 없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냥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 단, 아마존GO 무인 매장을 이용

하려면 아마존GO 앱을 설치하고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앱에서 다양한 메뉴도 볼 수 있고, 내가 구매한 제품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인공지능 카메라가 모든 매장 상황을 촬영하고 고객의 소비 행위를 분석한다.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 움직임 등을 감지하는 센서들은 자율주행차에도 탑재하는 첨단 센서다. 이 센서 또한 매장 내 사람들의 움직임과 구매한 물품 등 쇼핑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한다. 이렇게 모인 고객의 다양한 행동 데이터는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에도 반영되어 고객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다양한 데이터가 양질의 토양이 되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 꽃피우는 것이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너지 극대화

최근 신세계 이마트24가 코엑스 스타필드에 완전 스마트

무인 매장 1호점을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무인 스마트 매장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온라인 커머스 비즈니스가 핫한 요즘, 최근 국내 백화점 빅3는 오히려 오프라인 중심의 '혁신 매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더현대 서울'이다. 이는 서울 시내 백화점 중 최대 규모이며, 실내 공원 조성 및 인공 폭포 설치 등 공간의 절반을 휴식·문화 공간으로 꾸며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또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오프라인 매장 '무신사 스탠다드 흥대'를 열었고,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번개장터도 오프라인 공간 'BGZT 랩'을 선보이며 기존 온라인 회원과의 접점을 오프라인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오프라인 거점인 매장은 지역 기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 기반의 고객 반응, 고객 트렌드, 고객 행동을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거점은 해당 지역에서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며 본사에 중요한 정보를 속속 전달해준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볼 수 없던 아주 디테일한 분위기까지 감지할 수 있다. 만약 O2O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고, 이를 통해 고객 경험을 확보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거점인 매장을 오픈한다면 비즈니스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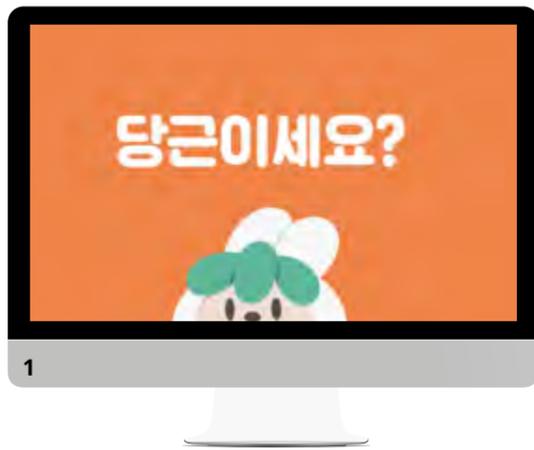
### 하이퍼로컬 시대와 O4O 비즈니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좁게 만들었다. 재택근무, 장거리 외출 자제 등이 길어지면서 라이프스타일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 권역 역시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좁아졌다. 이 같은 동네 상권을 이용하는 흐름은 소비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2월 서울시와 신한카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동으로 상권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명동과 이태원 등 주요 도심 상권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71%에 머무른 반면, 지역 상권은 전년의 89% 수준을 유지해 코로나19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동 인구도 서울 중구는 평일의 경우 29.8%, 주말의 경우 38.6% 감소했다. 반면 중랑·은평·강동구 등 외곽 지역의 유동 인구는 평일에 0.2%, 주말에 2% 증가했다. BC카드 데이터사업팀도 집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소비하는 단거리 고객이 2018년 21.2%에서 2020년 24.1%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팬데믹 시대, 기업과 소



1.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경험 데이터의 결합을 시도한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GO'
2.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무신사 스탠다드 흥대' 전경



1. 우리나라의 대표적 하이퍼로컬,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2.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한파 사태 때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로컬 스타트업 '넥스트도어'가 급부상했다.

상공인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잡기 위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극도의Hyper 좁은 지역Local 내에서 지역 간 커뮤니티나 상품을 판매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슬세권 안에서 그 지역만의 맞춤 전략을 만들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행위가 대형 IT 기업을 비롯해 유통·마케팅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온라인 미디어가 시공간을 초월해 방대했다면, 하이퍼로컬은 특정 지역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 활용도가 뛰어나고, 비즈니스 사업을 창출해나가는 데 효과적이다. 이용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을 중고 물건을 통해 연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 커뮤니티가 되길 원하는 당근마켓 같은 앱, 지역 내 신선 식품 배달 앱, 지역 주민이 여행자를 연결

해주는 앱, 취향이 비슷한 동네 친구 연결 앱 등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해 더욱 다양화·차별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거주지에 대한 관심과 정보 공유는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브랜드 생성과 공간 창출로 경제성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이퍼로컬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를 강타한 한파 사태 때 주목받은 업체가 있다.

동네를 기반으로 중고 거래와 부동산·구인구직·가게 광고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국의 하이퍼로컬 스타트업 '넥스트도어'다. 한파로 인한 정전·단수에 생활필수품마저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넥스트도어에 몰렸다. 자신이 가진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는가 하면, 고립된 사람들은 게시판에서 생존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미국 4가구당 1가구꼴로 넥스트도어를 이용할 정도였다. 넥스트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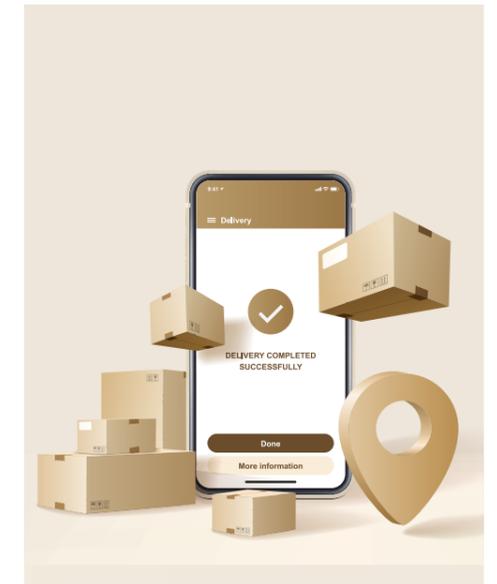
의 기업 가치는 2021년 10월 50억 달러(약 5조6,680억원)로 평가받을 만큼 하이퍼로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현상과 함께 급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 다양한 지역 기반 하이퍼로컬 서비스

좁은 지역에서 상품을 매개로 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이퍼로컬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공간이다. 지역 내 상업공간을 직거래 장소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나고 소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공간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오프라인 매장이 탈바꿈할 수 있다면 이는 향후 O4O 비즈니스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다.

하이퍼로컬 플랫폼의 온라인 데이터와 특정 지역 기반의 데이터는 서로 결합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퍼로컬이라는 트렌드는 특히 지역 기반 소상공인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수많은 대형 기업이 동네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조만간 앱을 통해 수집한 여러 가지 지역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특화된 오프라인 거점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기보다는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를 모집하거나, 그 지역의 브랜드된 특화매장과 손잡고 오프라인 거점을 확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 매장에 오는 고객의 특징과 트렌드·행동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나는 어떤 브랜드로 우리 동네에서 인식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고객 또는 이웃 같은 관계를 만들어야 향후 다가오는 대형 플랫폼의 O4O 비즈니스 전략의 파고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퍼로컬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O4O 비즈니스가 만나는 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 지역에 불어넣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곳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 각국의 하이퍼로컬 주요 현황

- 미국** **넥스트도어**  
동네 기반 중고 거래·부동산·구인구직 등 지역 기반 소셜 미디어 앱
- 영국** **올리오**  
남은 식자재와 중고 물품을 이웃과 거래
- 중국** **메이완 유쉬안**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는 방식
- 한국** **당근마켓**  
동네 기반 중고 거래·부동산·구인구직 소셜 미디어 앱으로, 월 이용자 1,4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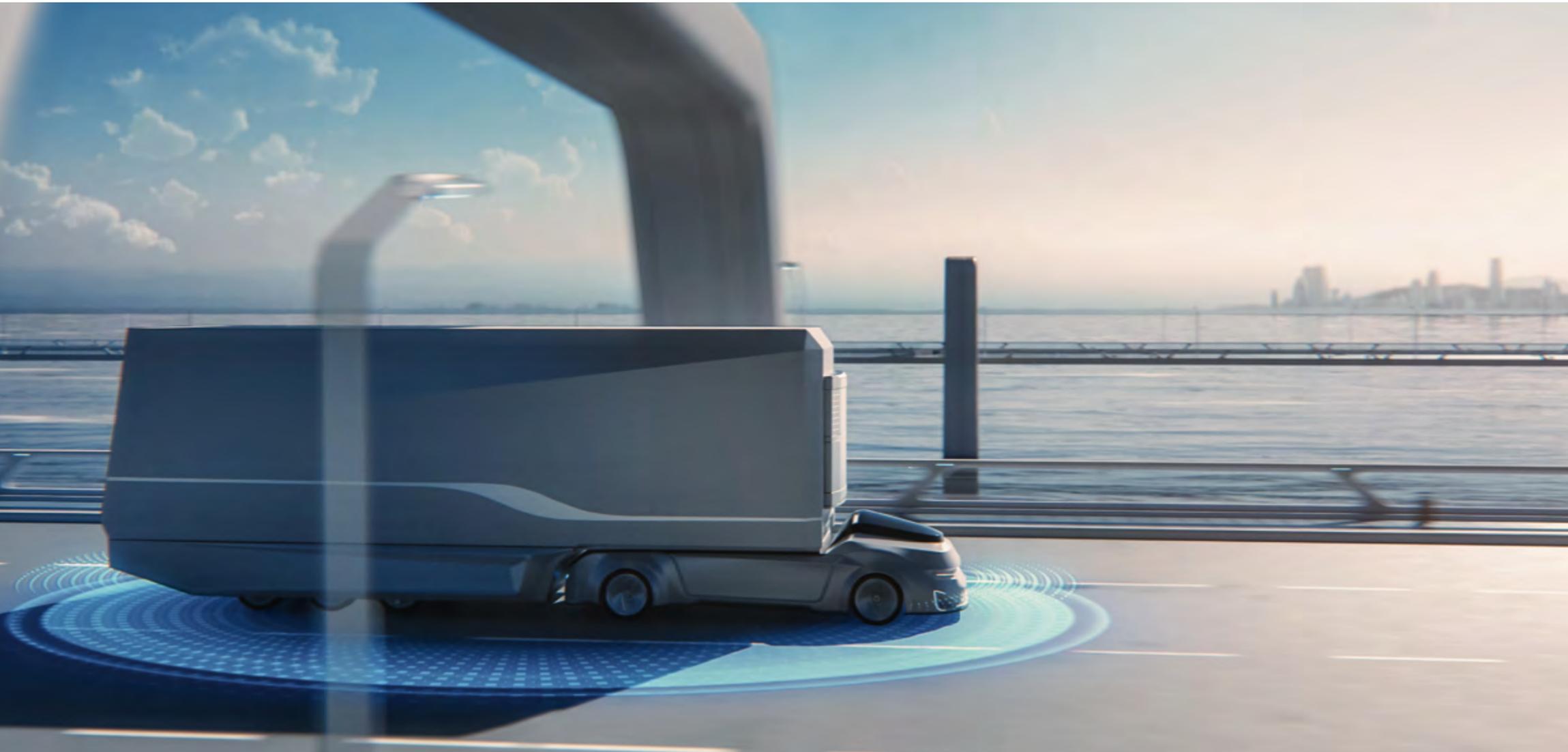
**네이버**  
네이버카페 기반 동네 커뮤니티 서비스 '이웃' 출시(2020년 12월)  
동네 게시판 성격의 '이웃 톡' 기능 추가(2021년 3월)

자료 각 업체, 블룸버그통신

# 모빌리티의 진보가 가져온 도시 변화

‘자동차’라는 단어보다 ‘모빌리티’를 더 많이 쓰는 시대다.  
우리나라 최대의 자동차 전시회 ‘서울모터쇼’도  
2021년부터는 ‘서울모빌리티쇼’로 명칭을 바꾸었을 정도다.  
‘모빌리티’의 진보가 가져온 도시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Writer: 이경현(한국인사이트연구소 소장)



##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대두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소형 이동 수단을 뜻한다. 걷기에는 조금 애매한 1~3km 정도 거리를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전동 킥보드, 전기 스쿠터, 호버보드, 전동 휠 같은 것이다. 사실 예전에 이런 이동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빌리티 수단의 기술 발전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의 연계를 통한 목적지까지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가능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서의 버스노선 증설 같은 해결 방안보다 경제적 효율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대부분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바이크 셰어링, 킥 스쿠터(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동 킥보드’라 부른다) 셰어링, 스쿠터 셰어링 등의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봉쇄 해제와 출퇴근 방식의 변화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스타트업 뿐 아니라 유수의 완성차 기업까지도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는 퍼스트·ラスト 마일을 위한 최적의 친환경 이동 수단이라는 잠재성이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퍼스트 마일이란 출발지를 나서 처음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동차 등을 의미한다. 라스트 마일은 대중교통과 자동차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1. 라스트 마일 배송의 가장 대표적 변화로 손꼽히는 배달 로봇
2. 모빌리티 서비스를 각인시킨 '우버'



### 라스트 마일 배송 혁신

앞서 언급한 퍼스트 마일과 라스트 마일은 본래 물류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특히 라스트 마일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마지막 접점을 뜻하는데, 모빌리티의 발전과 함께 라스트 마일 배송 방식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배달 로봇이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마존 스카우트'로, 바퀴가 6개 달린 이 로봇은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를 탑재해 움직이는 장애물을 알아서 피해 다니며 물건을 배달한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털'은 사람처럼 이족 보행이 가능한데, 최대 18kg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달할 수 있다.

배달 로봇은 사람이 배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악천후에도 활용할 수 있고, 배달원의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하며, 냉장·냉동 등의 기능을 갖추면 배송하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드론의 경우 단순한 배송보다 특수목적의 라

스트 마일 배송으로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먼 거리도 직선 이동이 가능해 신속하게 배송하는 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 산간 지역의 배송이나 응급 의약품 전달 등에 활용한다면 배송 사각지대를 없애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표적 공유 경제, 셰어링&헤일링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대중에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비즈니스를 각인시킨 것은 셰어링과 헤일링 서비스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이고, 차량을 호출해서 탑승하는 '카카오 택시'는 카 헤일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다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차량을 빌려주는 카 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셰어링과 헤일링 서비스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각각



1.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허브 역할을 하는 주차장
2. 전기차, 수소차 등의 확대에 정유회사들은 기존 주유소의 변신을 고민 중이다.

다른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유 서비스'라는 점이다.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특히 교통 효율화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사실 자동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을 살펴보면 하루 중에서 자동차를 직접 이용하는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도심에서는 주차난으로 고생한다. 보험·세금·유지·보수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함으로써 유휴 차량은 줄이고, 사용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MaaS, 모빌리티 허브와 슈퍼앱 등장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가 떠오르면서 중요해진 한 가지 개념이 더 있다. 바로 MaaS<sup>마스</sup>. Mobility as a Service인데, 핵심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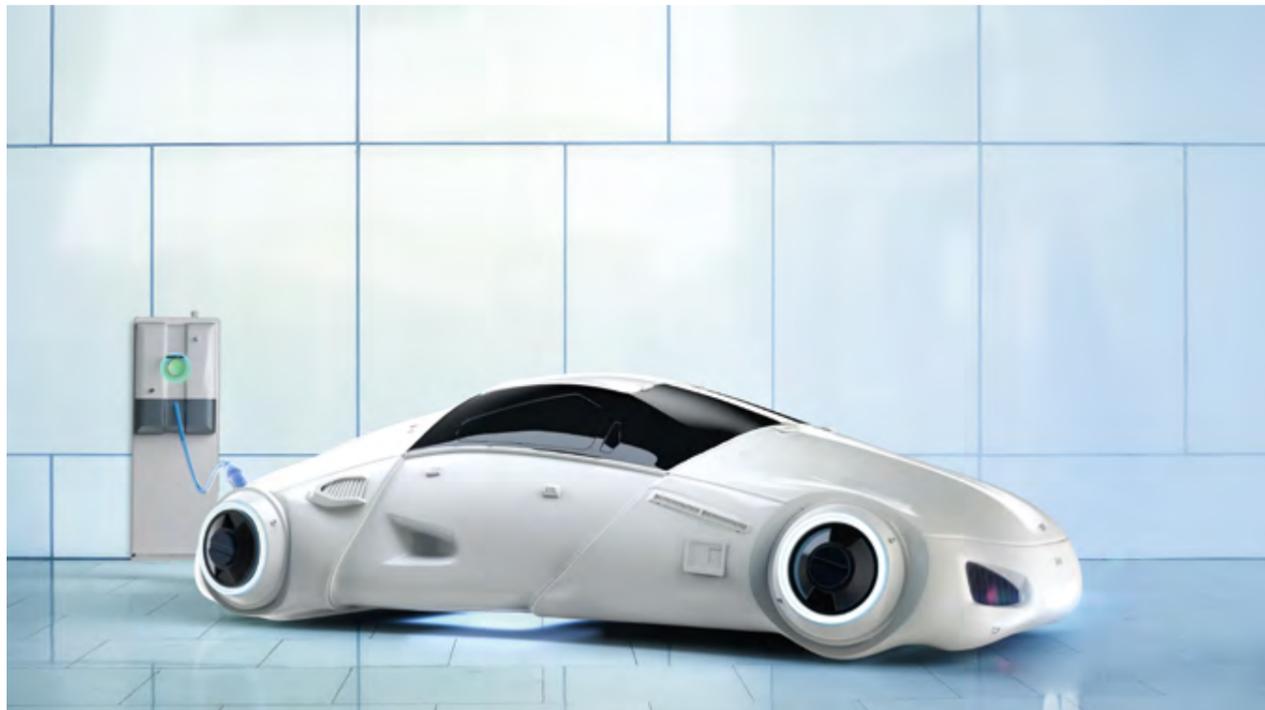
든 이동 수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다. 하나의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동 수단의 검색부터 예약, 결제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앱 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한다. MaaS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허브로서 물리적 공간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주목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 모빌리티업체들이 주차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차장은 각종 공유 모빌리티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물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MaaS에서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주는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쏘카는 모바일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운영사인 모두컴퍼니를 인수했고, 카카오는 2017년부터 '카카오T주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차장 운영 업체인 GS파크24를 인수했다. 티맵 역시 주차장 2,000여 곳을 운영하는 나이스파크와 제휴를 맺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모

빌리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차장이라는 공간적 거점을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모으고, 슈퍼앱을 통해 원스톱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속 가능한 자동차

모빌리티와 삶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바로 '탄소 중립'이다.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는 앞다투어 탄소 절감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 가까운 양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업계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동차업계는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되었다.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는 화석연료와 엔진 대신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한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전에는 짧은

주행거리와 지나치게 느린 충전 때문에 전기차가 대세일 것이라고 믿는 이가 적었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전기차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이가 드물다. 지난해 11월에 미국 루시드모터스가 만든 '에어드림'은 1회 완충했을 때 무려 837km를 달릴 수 있고, 많은 업체가 급속 충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거나 배터리 교체 방식을 사용해 충전 시간을 줄이고 있다. 수소차는 정확하게는 수소연료전지차(Fuel-Cell Electric Vehicle, FCEV)를 의미한다. 수소로 만든 전기로 구동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전기차지만, 이미 충전된 배터리를 동력으로 삼는 전기차와는 달리 차량에 저장된 고압 수소가 대기 중 공기가 만나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로 움직인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수한 물(H<sub>2</sub>O)만 배출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모빌리티로 분류한다. 수소 연료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공기를 빨아들여 필터로 먼지를 제거한 후 배기구로 깨끗한 공기가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인프라 시설과 산업의 쇠퇴를 가



자동차업계는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져올 것이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주유소가 많이 사라지고, 전기차 충전 시설 또는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정유 회사들은 주유소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미래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 디지털 고려장\*과 모빌리티 양극화

기술의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에도 주목해야 한다.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는 오히려 택시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눈앞에 보이는 빈 택시도 모바일로 호출하고 배차를 받아야만 탈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로부터 소외되면서 은행, 주민센터, 병원 등에서도 디지털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 앞으로 모빌리티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외되는 계층의 문제는 더욱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림자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이용자 경험을 더욱 증시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불비는 시외부터 가장 한적한 교외까지, 또 엘리어뎁터부터 정보 취약 계층까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모빌리티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이 떨어져 온라인과 모바일의 각종 혜택에서 소외되는 노년층을 놓고 취약한 부모를 산에 버렸다고 하는 옛 장례 풍습인 '고려장'에 비유한 것이다.



## 공용 공간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 공공재로서 건축을 말하다

공공재 기능이 축소되던 건축계에 다시금 공용 공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이 계기가 됐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과연 우리 건축을 공공재로 회귀시킬 수 있을까.

Writer: 한승재(푸하하하프렌즈 건축사무소 소장) Photo: 노경, 석준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팬데믹 일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모닝커피와 함께 상반신은 재킷을, 하반신은 파자마 차림으로 화상 미팅에 참석하는 직장인의 사진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격리 중 베란다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유럽인의 낭만적 모습이 뉴스 화면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그리고 줄어든 관광객 덕분에 눈에 띄게 회복한 자연 생태계가 팬데믹 이전 모습과 비교하며 인터넷에 떠돌았다.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정보들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연해진 듯, 깨끗해진 듯 보였다.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직장 문화의 변화, 위생 관념의 변화 등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 뜻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위기는 기회'라는 짧은 문구를 떠올리곤 한다.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건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태도일 텐데, 나는 때때로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현재의 안 좋은 상황을 반기기도 했다. 시험공부는 한글자도 하지 않고서, 시험이 너무 어렵게 출제돼 공부를 한 학생이나 하지 않은 학생 모두 빵점을 맞는 상상 같은 것 말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극히 위험한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나는 위기를 통한 반전을 꿈꾼다.

### 공공재 기능 약화되던 건축

팬데믹을 기회 삼아 꿈꾸던 건축의 변화는 공용 공간의 회복이었다. '건축은 공공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설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건물은 예나 지금이나 공공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권력 수단으로, 때로는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은 많은 부분 권력에 봉사해왔지만, 그럼에도 건축은 공공재로서 성격을 잃지 않았다. 계단과 로비, 복도 등 이른바 공공을 위한 공간은 건축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계획했다. 공용 공간은 많은 사

1,2. 이탈리아의 공원 풍경. 공원은 공용 공간의 연장이다.





람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 건물의 어느 부분보다 섬세하게 다듬어 계획하곤 했다. 화려한 계단, 천장이 높고 밝은 로비, 고요하며 위엄이 느껴지는 복도 등 건축이 이런 것에 집중한 사소한 이유는 '건축은 공공재'라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다. 한편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 이유는 건축이 뿔낼 수 있는 부분과 같다는 굽직한 믿음 때문이었다. 현대에 접어들어 건축이 수익 창출의 도구로 두드러지면서 건축의 성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전용면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용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계단과 복도가 법에서 강제하는 최소 폭 이상으로 설계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1층 로비 공간은 임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곤 한다. 입주자의 거주 환경에 초점을 맞춘 건축 계획은 내부 공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공용 공간의 환경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채광과 환기는 뒷전인 채 공용 공간은 최대한 후미진 곳에 배치되기 마련이다. 오직 자본에 집중한 채 건축은 공공재로서 성격을 잃어간다. 더 이상 공용 공간을 통해 부를 과시하지 않는 까닭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의 과시이기 때문이다.

### 다시금 공용 공간 중요성 일깨워준 팬데믹

팬데믹에 접어든 후 사람들이 공용 공간의 중요성을 깨닫길 기대했다.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파 경로가 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쾌적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은 넓어야 하고 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풍부한 채광을 통해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몇 년간 지속되어온 팬데믹은 재앙이 쉽사리 기회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소통하는 대신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당장에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고, 줌·구글 미트·배달의민족 등 많은 수단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자가 격리와 재택근무 등이 늘어나면서 건물 속 개인의 영

1,2. 방과 거실 등 전용 공간보다 계단과 발코니 등 공용면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한 연희동희희회(아래)와 성수연방(위)(무하하프렌즈 설계)



역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한편, 공공의 영역은 거의 주목받지 않게 되었다. 공용 공간은 집합 금지 팻말이 얹힌 채로 테이프로 돌돌 감아 봉쇄되었다.

### 공공성 회복하는 건축

재앙의 크기는 소득수준과 비례한다. 누군가에게 자가 격리는 14일 동안 견지 못하며 햇빛을 볼 수 없는 유사 형벌을 의미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집에 딸린 정원에서 산책도 하는 여유 있는 생활을 의미한다. 재택근무로 인한 일의 유연성이 부각되던 한편,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있었다. 한산해진 거리를 부각한 관광지 사진 이면에는 북적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거리 두기는 무의미하다. 유머러스한 재택근무 풍경 이면에 화상 미팅을 하는 동안 쥐 죽은 듯 있어야 하는 가족의 모습은 비치지 않았다. 개인의 경험을 떠올려보자면, 위기를 기회 삼아 반전을 꿈

꾸던 경험은 곧 배신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 차라리 모두가 망치길 바라던 어려운 시험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의 실력 차이는 더욱 극명히 드러났다. 재앙에 가까운 힘든 상황이 평소 여유 있던 이들을 고군분투하게 만들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보다 나아질 일은 아니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것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기대했지만, 위기는 힘든 사람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가 기회로 연결되지 않은 이유 역시 알고 있다.

언제나 희망이라는 것이 나태한 상상에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질 일은 많지 않다. 상상하고 믿고 움직여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을 지나며 건축은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최후엔 많은 사람이 비슷한 양의 행복과 비슷한 양의 불행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 믿는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의 의견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 불행한 기회를 통해 자신이 상상하는 세상을 기원해보는 것이다. ●

# 미래를 보는 숫자

## 피보나치수열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앞 두 숫자의 합이 다음 숫자가 되도록 반복해서 더해나가는 것을 피보나치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나뭇가지는 몸통(1개)에서 출발해 잔가지를 치며 2개가 되었다가 3개, 5개, 8개, 13개로 뻗어나가는데, 이는 피보나치수열과 일치한다.

## 마방진

# magic square

4	9	2
3	5	7
8	1	6

마방진이란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적되, 가로·세로·대각선에 있는 수들의 합이 모두 같도록 만든 숫자의 배열이다. 한나라 우왕 때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던 중 등 깎데기에 마방진을 새긴 거북이가 나타나 이를 공사 방법에 적용하면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후 마방진은 명당을 정하거나 길흉화복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 무한대



무한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숫자 8을 90도 회전한 것처럼 보인다. 고대 로마숫자의 1000인  $\text{C}(CI)$ 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학자 존 윌리스는 1655년 저서 <De Sectionibus Conicis>에서 무한대를 설명할 때 기호를 사용했다. 흔히  $\infty$  기호를 뫼비우스의 띠에 비유한다.

숫자에 숨어 있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내밀한 욕망과 상상력을 탐구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 숫자들이 있었기에 미래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었다. 역사 속 위대한 발견으로 꼽히는 숫자를 소개한다.

Writer: 강은진

## 황금비

1 : 1.618

조각상 중에서도 비너스를 가장 아름답다고 여가는데, 그 이유는 황금비를 잘 따랐기 때문이다. 황금비란 옛날부터 사람 눈에 가장 아름답고 편하게 보이는 길이의 비율이다. 사람들이 가장 안정감 있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비율은 1 : 1.618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황금비는 '신의 비례'라 하여 신성하게 여겼다. 황금비를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의 제자인 에우독소스이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황금비'라고 이름을 붙였다.

## 원주율

$\pi$  3.14

고대부터 인류는 원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율이 항상 같다는 것, 그리고 그 비율이 3배 조금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pi$ 의 추정치가 기록에 처음 출현한 것은 기원전 1900년경이다.

## 허수

$i = \sqrt{-1}$

실수는 기본적으로 크기를 나타내는 수이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제공하여 -1이 되는 수로 만들어지는 허수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허수는 수이지만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기에 '상상의 수'라고 부른다.

## 자연수

# 1 'One is Not Amused'

자연수의 시작인 1은 말로 그 뜻을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숫자다. 모든 수의 기본인 숫자 1은 가장 크고 완전한 동시에 가장 작고 부족하다. 작은 숫자이지만 최고, 승자, 리더, 총아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왕은 웃지 않는다'를 영문으로 하면 'One is Not Amused'이다.

# Welcome to TWO CHAIRS

우리은행의 역사와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TWO CHAIRS는 종합 자산 관리 은행을 지향하는  
우리은행의 프라이빗 बैं킹 브랜드입니다. **자산 관리 전문가와 세무&부동산 전문가**  
고객님의 금융 니즈에 맞는 종합 재무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고객님의 금융 플랜 전반에 최적의 해답을 드리는 평생 파트너로 함께하겠습니다.**



## 01 자산 관리 전문가 그룹

우리은행 자산 관리 전문가들이 주식·채권 투자, 리스크, 경제전망,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최적의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증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대일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자산관리의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 02 세무 전문가 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 간접세, 법인세 관련 상담 및 세금 관련 상담 등을 통해 복잡한 세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등 세금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성공을 뒷받침합니다.



## 03 부동산 전문가 그룹

부동산 시장 분석부터 투자 상담 서비스까지 부동산과 금융이 만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부동산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부동산 투자 및 해외 이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LIFE &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아트, 음악, 건축 등을 통해 마음의 눈을 키워보세요.  
더욱 풍성한 인생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곳, 두바이

사막 경제의 중심지 두바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상 최대 분수 쇼와 거대한 인공 섬, 하늘 높이 치솟은 마천루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게다가 최근에는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하며 현대적 첨단 도시의 매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Editor: 지인 Photo: 셔터스톡, 두바이 관광청



랜선으로 만나는 2020 두바이 엑스포  
궁금하던 두바이 엑스포 현장 이곳저곳을  
실시간으로 만나보세요.

인천에서 비행기로 9시간을 가야 도착하는 아라비아반도의 화려한 도시 두바이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니다. 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색 여행지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 여행자를 불러 모으는 까닭이다. 두바이에 새로 생긴 마천루·박물관·미술관·호텔 등과 관련한 소식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즉시 알려지고, 상상 그 이상의 스케일과 화려한 스펙으로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게다가 3월 31일까지 '지상 최대 쇼'라 불리는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하니 두바이를 방문하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다. 여행 목적지로도 완벽하고, 경유지로 방문해도 만족스러운 아라비아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시, 두바이로 떠나보자.

## 세계 최초, 역대 최대 규모의 2020 두바이 엑스포

지금 두바이를 방문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두바이에서 2020 두바이 엑스포가 3월 31일까지 열리기 때문이다. 170년 세계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엑스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볼거리가 가득하다. 2021년 10월 1일부터 시작한 두바이 엑스포는 2022년 3월 31일까지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라는 큰 주제 아래 함께 미래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한 10개 테마를 6개월간 나눠 보여줄 예정이다. 엑스포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191개 참가국 모두 개별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참가국 파빌리온 외에도 다국적기업,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파빌리온 등 봐야 할 것이 200개가 넘는다. 매일 60개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가 펼쳐지며, 200개 넘는 F&B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 Expo 2020 Dubai

### 최첨단 아이디어의 집약체, 파빌리온

참가국은 엑스포의 세 가지 소주제인 '기회 Opportunity', '이동성 Mobility',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중 하나를 선택해 그에 어울리는 자국의 기술과 문화, 예술 등을 선보인다. 이동성 구역에 자리한 한국관은 '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 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선진 정보통신기술 ICT이 담긴 전시와 공연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동성 파빌리온에서는 사람과 상품, 아이디어 및 데이터의 이동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엘리베이터와 로봇, 드론 웨이터 등은 이동성 구역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구역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과 자연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기회 구역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별 전시관 외에도 아시프 칸 Asif Khan이 디자인한 두바이 엑스포 정문, 55m 높이의 회전 전망대 하늘정원 Garden in the Sky, 패션 브랜드 까르띠에와 함께 운영하는 우먼스 파빌리온 Woman's Pavilion, 13m 높이의 구조물 벽을 타고 쏟아지는 153개의 소형 파도가 장관을 이루는 엑스포 2020 워터 피쳐 Expo 2020 Water Feature 등은 놓쳐서는 안 될 엑스포의 명물이다.

1. 영화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스타트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작팀이 의기투합해 만든 체험 공간, 이동성 파빌리온
2. 지속가능성 구역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 국가 파빌리온
3. 미래 도시를 보여주는 이동성 공간 내부



2

© Expo 2020 Dubai



3

© Expo 2020 Dubai



##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두바이

두바이는 언제든 쉽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는 아니다. 하지만 첨단 도시만의 편의와 바다, 사막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두바이만한 곳이 없다. 게다가 두바이에서는 럭셔리와 화려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최고급 호텔은 물론 레스토랑, 슈퍼카를 이용한 시티 투어까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준비물은 간단하다.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신용카드만 있으면 람보르기니부터 페라리까지 그 어떤 슈퍼카도 렌트할 수 있다. 도로 폭이 넓고 평평한 데다 주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럭셔리카 또는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여행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여기저기 인증샷을 남기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랜드마크와 다양한 쇼핑 타운, 스카이다이빙, 해저 탐험, 실내 스키, 레이싱 서킷 체험 등 세계 곳곳의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 체험을 두바이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것. 다이내믹한 시티 투어보다 좀 더 이국적 경험을 원한다면 두바이의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올드 두바이 지역을 방문해보자. 도시가 개발되기 전 전통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수백 년 동안 두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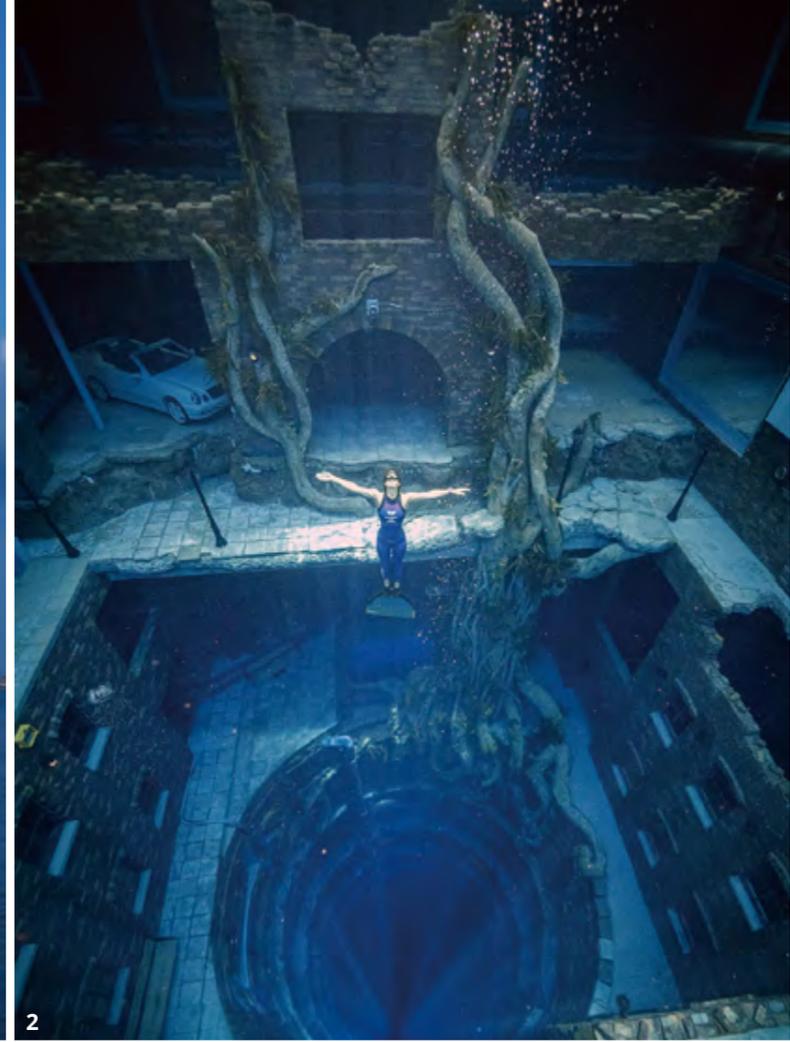
최고급 슈퍼카를 이용한 두바이 시티 투어도 가능하다.

이 상업의 중심지였다. 두바이 크리크를 중심으로 오래된 전통 시장인 골드 수크<sup>골드 수크</sup>와 스파이스 수크<sup>스�파이스 수크</sup>가 여전히 활기차게 성업 중이어서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특히 두바이 크리크는 해 질 무렵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운하와 선착장을 바쁘게 오가는 현대적 요트와 아랍 전통 배 다우가 붉은 노을과 함께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처 모스크에서 들리는 아잔 소리와 갈매기 소리, 항구도시의 다양한 소음이 섞여 두바이의 속살을 마주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

두바이에 관해서라면 불과 2~3년 전 정보라도 새롭게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는 개발과 건설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속속 들어서기 때문이다. 최근 두바이에서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곳은 2020년 10월에 개장한 팜 분수<sup>Palm Fountain</sup>다. 팜 분수는 오픈과 동시에 <기네스북>에 올랐다. 곳곳에 위치한 3,000개 이상의 조명과 7,500개의 분사 노즐이 최고 105m 높이로 바닷물을 쏘아 올린다. 기존에 부르즈 할리파<sup>Burj Khalifa</sup> 인공 호수에 설치된 두바이몰 분수 쇼보다 큰 규모로 '세계 최대 분수 쇼'

두바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팜 주메이라 전경



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021년 상반기에 오픈한 더 뷰 앳 더 팜 The View at the Palm 전망대도 주목할 만하다. 팜 주메이라 중심부에 자리한 더 팜 건물 꼭대기인 52층에 위치해 팜 주메이라라는 물론, 두바이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2021년 10월 말에 오픈한 아인 두바이 Ain Dubai는 두바이의 주요 랜드마크를 모두 내려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랜드마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로, 약 250m 높이로 현재 가장 높은 라스베이거스의 하이 롤러보다 83m나 높다. 한 바퀴 도는 데 약 38분 소요되며 캐빈 안에서 부르즈 알 아랍 Burj Al Arab, 팜 주메이라, 부르즈 할리파 등 두바이의 유명 랜드마크와 멋진 스카이라인을 360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다. 또 하나 <기네스북>에 오른 곳이 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으로 꼽히는 딥 다이브 두바이 Deep Dive Dubai다. 수심 60m 수영장으로 내부는 가라앉은 도시의 모습을 구현했다. 최첨단 조명과 음향 시스템이 연출을 돕는 이 거대한 수중 도시는 дай버들에게 새로운 모험과 탐험의 재미를 선사한다. ●

**Just do it** 안전이 최우선인 2020 두바이 엑스포



2020 두바이 엑스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열리는 첫 유관객 국제 행사인 만큼 엑스포를 개최하는 6개월 동안 관람객은 물론 참가자, 관계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만 18세 이상 성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엑스포 입장 72시간 전 PCR 검사의 음성반응지를 지참해야 입장을 허용한다. 한편, 엑스포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엑스포에 마련한 검사장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물론 관람객은 파빌리온을 비롯해 건물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행사장 부지 내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한다.

**위치·교통편**

2020 두바이 엑스포를 찾아가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쉽고 편리한 교통편은 메트로를 타고 가는 것이다. 이번 엑스포를 위해 신설한 루트 Route 2020 노선을 이용하면 두바이 마리나 Dubai Marina에서 20분 안에 엑스포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다. 엑스포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셔틀 'Expo Rider'나 일반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다. Expo Rider는 두바이 시내 아홉 군데에서 탑승 가능한데, 탑승역은 두바이를 찾는 여행객에게 익숙한 팜 주메이라, 두바이 몰, 두바이 국제공항을 비롯해 두바이 글로벌 빌리지 Global Village, 국제도시 International City 등에 정류소가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해 엑스포를 방문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선착순으로 발레파크킹 서비스(AED 95, 약 3만 6,000원)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가장 최근에 오픈한 '아인 두바이'
2.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영장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딥 다이브 두바이'
3. 수천 개의 조명과 물줄기로 보는 이를 황홀하게 만드는 세계 최대 분수 쇼 '팜 분수'

박현기, 'Untitled', 돌과  
마이크·스피커·소리, 가변 크기,  
1983(2015년 재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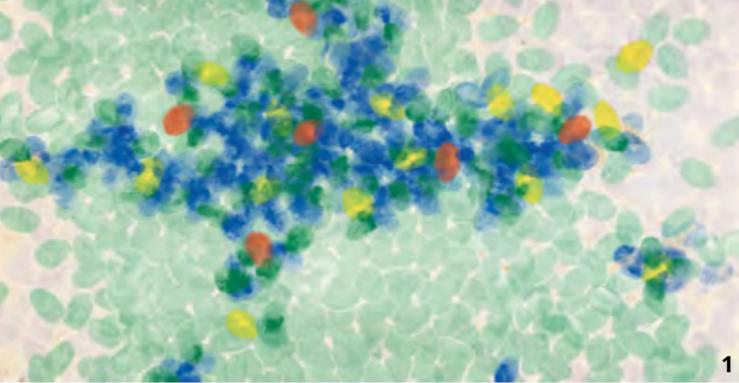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 그 실험적 미술의 선구자

국제 미술계가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주목하고 있다. 전통 회화와 조각에서 벗어나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을 전개한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선구자를 만난다. 이들이 시대를 앞서 세상에 내놓은 놀라운 작품에는 '미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생생한 질문이 살아있다.

Writer: 김재석(갤러리현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단색화 붐이 일어난 이후 국제 미술계는 한국의 아방가르드 미술을 주목하고 있다. 결정적 사례로 구겐하임 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공동 기획전을 꼽을 수 있다. 두 기관은 파트너십을 맺은 뒤 <아방가르드: 1960~1970년대 한국의 실험 미술>The Avant-garde: Korean Experimental Art of the 1960s to 1970s>전을 준비 중이다. 2023년 개막할 예정으로, 출품작과 구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 전이지만 이강소·이진용·이승택·김구림·성능경 등의 작가가 참여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뉴욕 현대미술관, 테이트 미술관, M+ 등 유럽과 미국·아시아의 주요 미술 기관에서 한국 실험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 실험 미술을 재조명하는 일련의 기획과 프로그램은 당대에 획기적 작품을 발표했는데도 서구 중심의 미술사에서 소외된 세계 곳곳의 미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관련 전시를 기획하는 해외 미술계의 동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한국의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한 장르나 특정 사조에 포섭되지 않는 전위적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공, 삶과 예술, 물질과 관념, 전통

과 혁신, 실재와 환영 등 미술사를 가로지르는 첨예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중반은 한국의 '실험 미술'이 꽃피운 시기라 할 수 있다. 앵포르멜<sup>Informel</sup> 이후 '한국 화단의 새로운 조형 질서를 모색 창조'하려는 작가들이 주축이 된 그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한국 최초로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며 기성작가와 이론가가 함께 결성한 한국 아방가르드협회(1969~1975), 미술뿐 아니라 음악·패션·영화·연극 등 타 예술 장르에 종사하는 20~30대 예술가로 구성된 제4집단(1970),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실험 미술을 시도하고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미술에 이론적으로 접근한 Space & Time 조형 예술학회(1969~1981), 전국의 실험 작가를 결집한 대구 현대예술제(1974~1979) 등의 그룹이 대표적이다. 이 그룹에서 활동한 작가는 전통 회화와 조각에서 벗어나 입체, 오브제, 설치, 개념 미술, 이벤트, 퍼포먼스, 비디오, 사진, 대지 미술 등 장르와 매체 넘나드는 놀라운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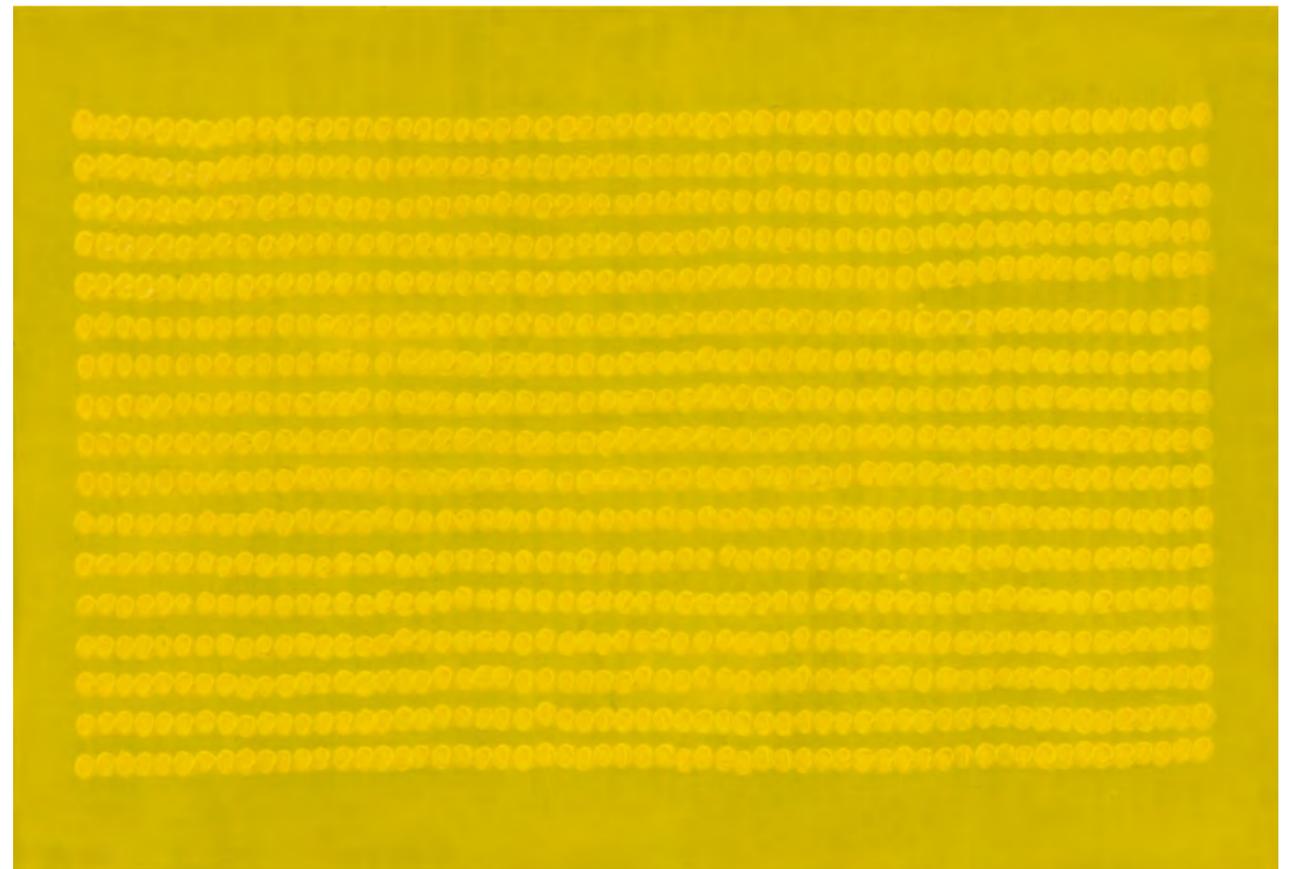


3

## 사물의 소리를 듣다

작가들의 실험 정신은 익숙한 사물을 새롭게 보는 데서 출발했다. 광인식(1919~1988)은 사물을 진지하게 관찰하며 물질성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작가로, 일본과 한국 현대미술의 출발점에 있는 존재로 평가받는다.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회고전으로 미술 전문가뿐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생전 자신의 작업을 “사물의 소리를 듣는 일”이라 표현했듯, 광인식은 돌·유리·종이·놋쇠·철판 등 일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오브제를 재료로 선택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사물의 가능성을 실험했는데, 원색 물감에 석고를 발라 두꺼운 질감을 표현하고, 캔버스에 바둑알·철사·전구 등을 부착하며 재료의 물성에 주목했다. 1960년대 말 그는 종이를 탐구하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종이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얼핏 보면 약하지만 강인함을 지닌 종이에 작가는 매료됐다. 그의 이러한 실험 정신은 자연 재료와 공업용 소재를 결합한 일본의 예술 경향 모노하(物派, Mono-ha)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인식의 재료에 관한 혁명적 사고의 전환은 돌, 로프, 책, 캔버스를 활용한 이승택(1932~)의 비조각 작품과 조응한다. 이승택은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비조각(Non-sculpture)’이라는 자신만의 핵심 개념을 담은 전위적 작품을 발표해왔다. 작가는 서구의 근대적 조각 개념에서 벗어나 옹기, 고드랫돌, 노끈, 비닐, 각목, 한지, 책 등 비조각적 재료를 작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나아가 물·불·바람·안개·소리 등 자연 요소를 작품에 끌어왔으며, 야외 공간과 특정 상황에 개입하고 이를 사유화하는 작품을 열정적으로 창작했다. 2020년 11월, 국립현대

1. 광인식, '작품 85-BG', 종이에 채색, 96.5×180cm, 1985
2. 이승택, 'Untitled', C-print, 50.5×60.7cm, 사진 촬영 1987, 인화 1988
3. 광덕준, '심연 II', 나무 패널에 석고·호분·수지·수채·아크릴릭, 183×133cm, 1967



김기린, 'Inside, Outside', 캔버스에 유채, 55x81cm, 2008

미술관에서 회고전 <이승택-거꾸로, 비미술>을 통해 그의 방대하고 심오한 작품 세계가 세상에 공개됐다. 광덕준(1937~)은 명확하고 자명한 것으로 여기는 세계의 구조와 질서에 난센스의 미학으로 응답했다. 일본 국적으로 일본에서 거주하던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으로 일본 국적을 박탈당했다. 의도치 않게 재일 한국인이 되었지만, 온전하게 한국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작가의 문화적 정체성은 미술 작품의 재료와 매체를 실험하는 개념적 아이디어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021년 광주비엔날레에서 공개해 화제를 모은 1960년대 회화 연작 '심연 II', '여로 675', '파도에 휩쓸리는 기억' 등은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다. 나무 패널 위에 석고와 호분으로 두꺼운 층의 요철을 만들어 채색하고, 목공용 본드로 코팅한 후 못으로 무수한 선을 굽어내길 반복해 완성한 인간 형상에서

는 고독감과 외로움 그리고 강한 생명력이 동시에 느껴진다. 박현기(1942~2000)는 돌·나무·흙과 같은 자연 물질과 TV·거울·유리 같은 인공 물질을 병치하거나, 자연 풍경을 담은 영상을 건축적 설치와 결합하는 등 관념적 비디오아트 세계를 구축했다. 또한 건축과 회화를 공부한 이력답게 특정한 장르에 한정하지 않고 조각·설치·퍼포먼스·회화·사진·포토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실험했으며, 새로운 형식과 매체에 대한 조형적 관심을 돌탑·굿 등 한국의 토속적 정신문화와 연결했다.

## 회화란 무엇인가?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많은 실험 미술가를 사로잡았다. 이들에게 회화는 전통적 미술사에서 물감을 바르



1. 이건용, 'Bodyscape 76-2-92', 종이에 연필·아크릴릭, 193.6×136cm, 1992
2. 이강소, '강에서-99184,' Acrylic on Canvas, 259×194cm, 1999
3. 신성희, '공간별곡', 캔버스에 아크릴릭·오일, 125×158cm, 1997. 갤러리현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는 평면이 아니라 사과의 전환을 위한 무대와도 같았다. 김기린(1936~2021)은 회화의 깊이를 되살리기 위해 평면을 다차원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1960년대 김기린은 절대적 색이자 절대적 가치를 지닌 순수한 흑색과 백색이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특성에 집중했다. 회화의 깊이를 되살리기 위해 평면성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탐구한 작가는 1970년대 들어 회화의 프레임, 순수한 단색이 지닌 역동성 그리고 빛과 형태의 관계에 집중하며 'Visible, Invisible' 연작을 제작했다. 투명성과 불투명성이 결합된 김기린의 회화는 빛의 반사와 흡수 사이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룬다. 이건용(1942~)은 한국 실험 미술 운동을 대표하는 Space & Time 조형예술학회 설립 멤버이자 한국 아방가르드협회의 주요 작가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흐름의 최전선에 있던 이건용은 1973년 파리 비엔날레, 197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여하며 1970년대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았다. 197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온 'Bodyscape' 연작은 전통적 의미의 회화 제작에 따르는 인식 관계를 혁명적으로 전복한 작품이다. 작가는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손이 닿는 만큼 그리고 몸이 움직이는 만큼 이동하며 마치 수행하듯 천천히 선을 화면에 남기며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미술가로서 '그리는' 행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찰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실험 미술 움직임을 주도한 이강소(1943~)는 특정 행위와 과정, 그것에서 발생한 흔적을 강조하며, '생성과 소멸'이라는 철학적 화두를 제시했다. 1970년대 발표한 '회화-77102',

'Dropping-76377', '무제-76098' 등은 붓과 물감 튜브, 페인트 통, 책상 등 회화의 재료나 작품 제작 현장을 세리그래피 Serigraph 기법으로 이미지화한다. 작가는 여기에 회화의 지지체인 캔버스 천의 실밥을 한 올씩 뽑거나 찢고 물감을 문힘으로써 물질로서의 회화, 그리고 회화의 평면성 문제를 사유한다. 이후 발표한 '허무. Emptiness', '청명. Serenity' 연작은 동양 회화의 여백 미, 작가의 호흡과 리듬, 몸의 제스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강렬한 획의 교차가 잊히지 않는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누아주. Nouage. 역움의 작가' 신성희(1948~2009)는 1970년대 한국 화단의 큰 흐름이던 단색화의 영향 속에서 극사실 모노크롬 마대 회화를 제작해 시대 흐름에 합류하면서도 평면에서 입체로 나아가려는 독자적 회화 세계를 구축했다. 작가는 평면 마대 위에 마대의 한

올 한 올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바탕과 이미지를 동일화하는 동시에 실상과 허상을 대비시켜 회화의 본질에 접근했다. 이후 그는 '연속성의 마무리' 연작에서 말했듯이 "회화를 떠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면 작업에만 머물지 않는" 공간을 창조했다. 채색한 캔버스 천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띠로 만들어 서로 잇대고 박음질해 완성하는 '연속성의 마무리' 연작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색띠를 엮어 화면에 그물망을 구축하는 '누아주' 연작으로 그의 회화 실험이 만개했다. 작가는 이렇게 강조했다. "나의 작품은 찢기기 위해 그려진다. 그리고 찢는다는 것은 이 시대 예술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이 접하며 묶여지는 것은 곧 나의 답변이다. 파괴와 창조의 실험 정신! 그것이 한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매력일 것이다." ●

# 산책하며 감상하는 길 위 예술품

건축물은 기능적 역할을 넘어 그 자체가  
예술품이나 관광 명소로 사랑받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도 건축미와 공공성을 모두 갖춘  
건축물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격 혹은 조화로 시선을 끄는,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을 만나보자.

Editor. 두경아 Photo. 각 장소 제공

photographed by Fernando Guerra ©Openbooks.

## 빛의 미술관 알바루 시자의 미메시스아트 뮤지엄

‘미메시스아트 뮤지엄’은 파주출판도시 안에 자리한 미술관이다. 알바루 시자 Alvaro Siza가 설계하고, 건축가 카를루스 카스타네이라 Carlos Castanheira 김준성이 공동으로 건축했다. 시자는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건축가이자 조형예술가다. 그는 외형적 화려함보다는 사용자를 배려한 기능을 추구하는 건축가로 알려졌다. 대표작으로는 포르투 세할베스 현대미술관, 아베이루 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안양 파벨리온을 시작으로, 아모레퍼시픽 연구원 미지움 등을 설계했다. 곡선이 유려한 밝은 회백색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제각각 크기가 다른 여러 전시 공간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 모습이 눈에 띈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 전시 공간은 인위적 조명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이어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53, 파주출판도시





© 갤러리아광고



© 코오롱그룹

### 건축계의 이단아가 만든 백화점 렘 쿨하스의 갤러리아 광고

현대건축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네덜란드 출신 건축가 렘 쿨하스 Rem Koolhaas와 그의 건축 사무소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OMA다. 이들은 러시아 모스크바 그라주 현대미술관, 중국 베이징의 CCTV 본사, 미국 시애틀 중앙도서관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을 선보였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갤러리아 광고'는 창이 없는 박스형 백화점에서 모든 층에 자연광을 유입해 최초로 빛이 관통하는 백화점을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건물 외부는 거대한 암석층 단면 문양을 형상화했고, '갤러리아 루프'라는 이름의 유리 통로가 전 층을 나선형으로 휘감고 있다. 1,451장의 삼각형 유리로 구성된 유리 통로는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동식 미술관이다. 빛을 따라 총 540m의 유리 통로를 걸으며 곳곳에서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밤이 되면 암석속 보석처럼 빛나는 조명 효과가 극대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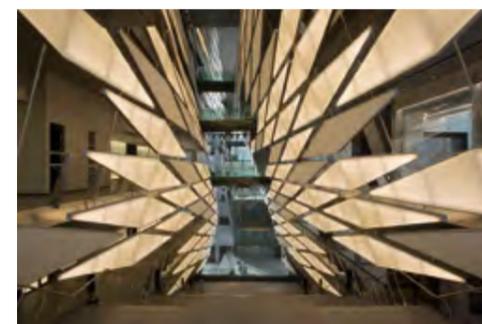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124

### 건물 외벽을 섬유 직조 패턴으로 만든 톰 메인의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

'코오롱 원앤온리 One&Only 타워'는 마곡 사업 지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이 건물을 설계한 톰 메인 Thom Mayne은 독창적 건축설계로 유명하다. 미국 연방법원과 연방정부청사, 캘리포니아 교통국 청사 등의 설계에도 참여했다. 우리나라와는 세종시의 엠브릿지, LG전자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쇼룸 등으로 인연을 맺었다. 원앤온리 타워는 톰의 건축 스타일이 잘 녹아든 건축물이다. 건물 외관 전면부는 코오롱의 모태 산업인 섬유를 상징하며 의류 니트 조직을 늘렸을 때 나타나는 섬유의 직조 패턴을 형상화한 패널로 덮여 있다. 이 패널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개발한 최첨단 신소재 '강화플라스틱'과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을 사용해 의미를 더했다. 내부 소통을 중시하는 기업 조직 문화를 반영해 공용 공간을 극대화한 구조와 모든 층과 연결되는 대계단 Grand Stair이 인상적이다. 2020년에는 국제건축대상 International Architecture Awards 기업업무빌딩 부문 건축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루이 비통

### 수원화성·동래학춤의 영향을 받은 프랭크 게리의 루이 비통 메종 서울

프랭크 게리<sup>Frank Gehry</sup>는 1989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캐나다 출신 미국 건축가로,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루이 비통 재단 미술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 거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장으로 '파격적 곡선의 창조자'라 불리는 그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는 기존 건축 개념을 벗어난 곡선 비정형 구조와 티타늄, 특수유리 등을 외장재로 활용한 미래형 디자인 등 흉내 내기 어려운 창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시공할 때도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가 일반 건축물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9년 개관한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으로, 그의 상징인 곡선 유리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수원화성과 흰 도포 자락이 너울대며 학 모습을 형상화한 전통 동래학춤의 우아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됐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54, 루이 비통 메종 서울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 Jihyun Jung.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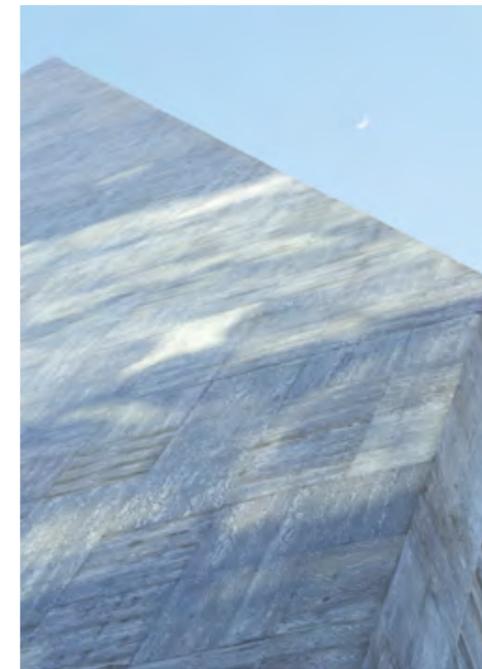
### 도시와 어우러진 건축물 헤어초크&드 피롱의 송은

얼마 전 서울 청담동 대로변에 날카로운 삼각형 건물이 들어섰다. 건물 정면은 평범한 사각형이지만 옆면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좁아진다. 이 건물은 세계적 건축가 듀오 자크 헤어초크 Jacques Herzog와 피에르 드 피롱 Pierre de Meuron이 운영하는 건축설계 사무소 헤어초크&드 피롱<sup>HdM</sup>의 작품이다. 베이징 올림픽주경기장, 런던 테이트 모던, 도쿄 프라다아오야마 등이 이들의 손을 거쳤다. 헤어초크&드 피롱은 주로 지역적 맥락과 문화에서 건축적 영감을 받은 미니멀한 요소의 건축디자인을 선보인다. 2021년 9월에 문 연 '송은' 역시 건물이 위치한 청담동의 지역적 맥락과 문화, 환경에서 건축적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목판 거푸집을 사용해 질감을 표현한 콘크리트 외벽이다. 목판의 문양과 결을 통해 건축물의 부피에 촉감을 더한 표면은 숨어 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sup>松雲</sup>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1





# 범 내려온다, 호랑이나라

고대 단군신화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마스코트이던 '수호랑'에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왔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자 든든한 수호신이기도 했던 호랑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문화 속에 깃들어 있을까?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해 특별전 <호랑이나라>를 통해 만나보자.

Editor: 강은진 Photo: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호랑이해 특별전 전시 풍경



국립민속박물관 <호랑이나라> 전시  
VR을 통해 <호랑이나라> 전시를  
온라인으로도 감상해 보세요.

약 120년 전에 출간한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비숍 Isabella Bishop의 대표적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urs>(1897)을 보면 “조선 사람은 반년 동안 호랑이 사냥을 하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사냥한다”고 하며, 조선에는 많은 수의 호랑이가 서식한다는 기록이 있다. 100년 안팎의 가까운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은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었는지 쉽게 짐작이 가는 구절이다. 그뿐만 아니다. 호랑이와 관련해 <한국 구비문학대계>에서는 1,000건 이상의 설화를,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에서는 700건 이상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호랑이와 관련한 지명만 하더라도 전국에 389개(2009 국토지리정보원)나 된다. 구술과 기록, 지명 등에 나타난 방대한 호랑이의 흔적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호랑이가 함께했다는 증거다. 2022년 임인년 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이해 국립민속박물관은 호랑이에 관한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특별전 <호랑이나라>를 진행하고 있다. 잡귀를 물리치는 신성한 영물로, 재난을 몰고 오는 난폭한 맹수로, 또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리 있는 동물이나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동물 등 우리 삶과 함께해온 다채로운 호랑이를 만나보자.

## 두려움은 곧 숭배로

호랑이와 곰이 환웅의 배필 자리를 놓고 경쟁한 단군신화의 승자는 곰이다. 그러나 우리 민속에는 곰보다 호랑이가 월등히 많이 등장한다. 이는 구술과 기록에 나타난 수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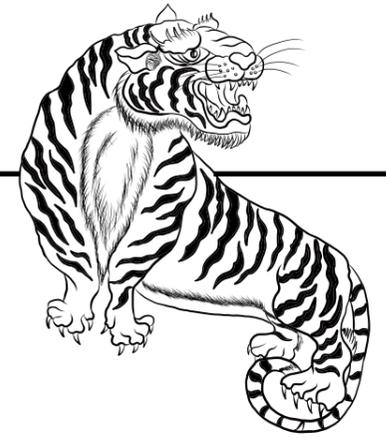


호환(虎患)의 흔적으로 유추해볼 때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리 조상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호랑이를 든든한 수호신으로 바꾸어놓았다. 호랑이를 신으로 삼고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지>의 '위서동이전(魏書東夷傳)' 기록,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부르며 무당이 진산(鎭山)에 도당제를 올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기록 등을 통해 호랑이가 산신, 산군, 산신령 등으로 불리며 신으로 섬겨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은산별신제(恩山別神祭)'에서 썼던 산신도(山神圖)를 비롯해 초창기 민속학자 석남 송석하(宋錫夏, 1904~1948)가 일제강점기에 수집한 산신도, 산신당, 흑백사진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산신으로 섬겨온 호랑이의 흔적도 확인할 수 있다.

### 대문에 웬 호랑이가

호랑이는 예로부터 그림이나 부적 등에 새겨져 나쁜 기운, 즉 액을 막는 벽사의 수단으로 쓰였다. 새해 첫날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그려 붙이는 세화(歲畫), 단오날에 쪽으로 호랑이 형상을 만드는 애호(艾虎) 등이 액을 물리치고자 한 조상들의 대표적 풍속이다. 조선 시대에는 신부의 신행길 가마 위에 호랑이 가죽을 덮는 풍습이 있었다. 전시장에는 호랑이 그림이 그려진 가마보가 덮인 100여 년 전 가마가 놓여 있는데, 호랑이가 신부를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호랑이 가죽이 귀해지자 호랑이 그림 가마보를 엮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번 전시에는 세화와 애호의 풍속을 확인할 수 있는 <열양세시기(洵陽歲時記)>, 더불어 삼재를 막기 위해 만든 삼재부적판(三災符籍板), 작호도(鵠虎圖) 등이 공개됐다. 모두 사람을 해치는 맹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로운 존재로 여긴 흔적들이다.

1. 호랑이와 까치를 소재로 그린 민화 작호도(鵠虎圖), Tiger and Magpie
2. 십이지와 호랑이띠 관련 내용이 전시된 1부 전시장



### 호랑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표 지명

#### 호랑이의 꼬리, 경북 포항시 호미곶

한반도 전체를 호랑이에 묘사하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의 '호미곶'이다. 흔히 꼬리라 하면 '끝'이나 '뒤'처럼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기 쉽지만, 호랑이의 꼬리는 다르다. 꼬리의 힘으로 달리고, 무리를 지휘하기 때문. 호랑이 꼬리를 국운의 상승과 국민안(國民安)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유다. 게다가 호미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어 새해맞이에 이만한 곳도 없다.

#### 삼년상 지킨 호랑이, 경남 거제시 둔덕면 호곡마을

경남 거제시 둔덕면 '호곡마을'은 시묘살이를 하는 효성 지극한 상제의 옆을 지킨 호랑이에서 유래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3년 동안 늘 상제의 옆을 따라다니며 보호해주었다고.

#### 호랑이와 가장 닮은 형상, 충남 연기군 남면 범직이마을

충남 연기군 남면 고정리 '범직이마을'은 호랑이 형상과 가장 닮은 곳으로 손꼽힌다. 마을 뒤의 형상이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마을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해서 유래한 지명인데, 최근 항공 촬영을 통해 호랑이 형상이 뚜렷하게 확인돼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 호랑이 입,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

'호구포(虎口浦)'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주변에 있던 포구다. 현재는 육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호구포역', '호구포사거리' 등 지명으로 남아 있다. 호구포는 포구의 형상이 호랑이 입처럼 생겨 붙은 지명이지만, 호구포 뒷산인 오봉산 기슭에 호랑이가 입을 썩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의 바위가 있어서 호구포라 불렀다고 전해진다.

#### 호랑이가 출현,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저고리골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의 '저고리골'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저고리만 남겨놓았다 해서 붙은 지명이다. 또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힌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는 경기도 양평의 '비호고개', 경남 산청의 '원탕이', 경북 경주의 '호명' 등이 있다.



1



2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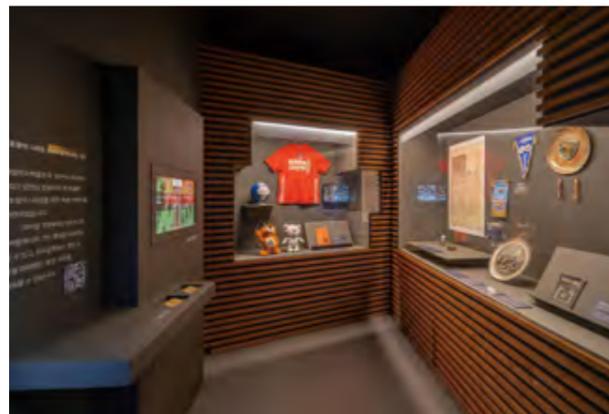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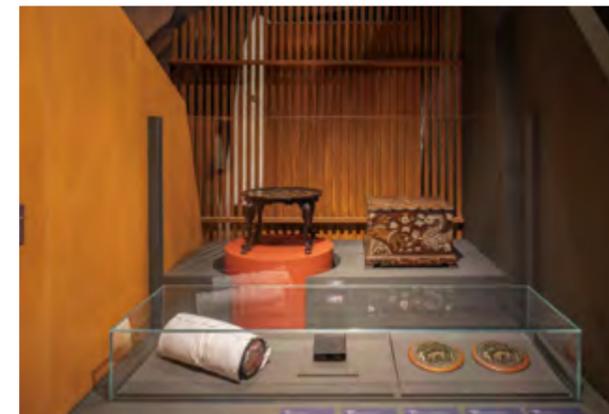


7

1. 멧호도 猛虎圖, 20세기 초
2. 산신도 山神圖, 1890년대
3. <열양세시기 烈陽歲時記>, 19세기
4. <당사주책 唐四柱冊>, 1950년대
5. 삼재부적판 三災符籍板, 20세기
6. 호랑이 목각 인형, 20세기 초
7. 사인교 四人橋, 20세기 초
8. 상어를 장식하는 호랑이 탄 인형, 19세기 말~20세기 초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 모습



바둑판, 벵겟모, 호족반 등 생활 속에 자리한 호랑이

### 이 범을 잡아야 될 거라야

호환을 방지하기 위한 범굿도 만나볼 수 있다. 동해안 지역에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호환을 방지하기 위해 범굿을 지냈다. 포항의 '강사리 범굿'이 대표적이다. "이 범을 잡아야 될 거라야 그놈 참 머 험하기도 험하다"(호랑이의 포악함을 표현한 무가 내용)라는 무가 巫歌로 시작해 "옛날에 모두 옛 조상들데 눈이 호랑이긋을 이래 불러주고 위해줍니다."(오래전부터 조상들이 범굿을 지냈다는 내용을 알리는 무가 내용)라는 무가로 범굿을 마치는데, 이를 통해 호환의 두려움과 오래전부터 범굿이 전승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전시에서는 '한국의 굿' 시리즈로 유명한 사진작가 김수남 金秀男, 1949~2006이 1981년에 촬영한 강사리 범굿의 사진을 슬라이드쇼 형태로 소개한다.

### 호랑이, 호랑이, 역시 우리는 호랑이

자생 호랑이가 멸종해버린 오늘날 한국에서의 호랑이는 예전처럼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며 우리 곁에 살아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호돌이'와 2018년 평창올림픽의 '수호랑'은 호랑이를 활용해 만든 대회 마스코트로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상징했다. 또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

는 국가 대표 축구팀의 유니폼에는 호랑이가 엠블럼 형태로 부착돼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2022년 한일 월드컵 기념 축구공, 남아공 월드컵 기념 티셔츠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위상을 떨치는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학생들이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진취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군대나 학교의 상징물로 호랑이를 채택하기도 한다. 올해는 육십갑자 六十甲子로 임인년 壬寅年이고, 음양오행설에 따라 임 壬이 북방위인 검은색이기에 검은 호랑이 黑虎의 해가 된다. 부디 기세 좋은 흑호의 기운으로 코로나19라는 액도 물리치고, 가내 평안함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 어흥, 호랑이다! ㊦



**전시명** <호랑이 나라>  
**전시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2  
**전시 기간** 2021년 12월 22일(수)~2022년 3월 1일(화)  
**전시 내용**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 호랑이의 상징과 문화상 조명

# 취향을 배달해드립니다! 지금은 플랫폼 전성시대

술·그림·독서·글쓰기·무용까지, 원하는 취미를 다 만날 수 있는 취향 플랫폼이 뜨고 있다.  
구독 클릭만 하면 준비 완료. 풍성한 플랫폼의 세계로 떠나보자.

Writer: 유나리 Photo: 셔터스톡, 한경DB



미술품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는 '오픈 갤러리'. 최근 한 대형 아파트 브랜드와 구독형 주거 상품을 내놓았다.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릴 때 승객이 기다리는 평평한 공간을 뜻하는 플랫폼.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라는 의미는 요즘 '플랫폼'을 설명할 때도 유효하다. 기업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인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가장 전통적이면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백화점을 들 수 있다.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은 백화점에 입점해 팔 기회를 얻고, 소비자는 여러 매장이 모인 백화점에서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다만 요즘은 플랫폼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그 플랫폼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사고파는 물건도 다양해졌다. 자동차 대여부터 단순한 재화가 아닌 무형의 재능, 주변 주차장 정보 같은 무형자산까지 확장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 의미의 플랫폼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유튜브. 누구나 채널을 만들어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다. 대중화에 기여한 또 다른 곳은 바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빈집과 여행자를 연결한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

텔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 플랫폼으로는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를 꼽을 수 있다. 누구나 작가 등록을 할 수 있고, 독자가 되어 원하는 작가의 글을 구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카오 역시 언론 매체를 통해 콘텐츠 추천 서비스 '카카오뷰'를 선보이며 콘텐츠 플랫폼 성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취미·테크·건강·교육 등 총 22개 주제 중 고를 수 있고, 언론사·창작자도 직접 골라 마음에 드는 콘텐츠만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 취향이 중요한 시대

이처럼 모든 것이 플랫폼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채널이 취향을 '공유'하고 '전시'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뉴스 페이지 하나도 보고 싶은 것만, 취향에 맞는 것만 골라 업로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플랫폼 안에서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거나

**Banksy (1973~)**  
"Love Rat"



1

©tessa



1. 미술품 투자 플랫폼 '테사'가 지난 12월 조각투자 대상으로 선보인 뱅크시의 '러브 랫'은 투자 개시 1분 만에 완판됐다.
2. 정기 구독하면 다양한 취미 키트를 배달해주는 '하비박스'
3. 전국 각지에 흩어진 전통주를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는 플랫폼 '술담화'의 배달 키트

©한경DB

©한경DB

제안하는 등 취향 확장의 다양한 경로를 제공한다. 음악 플랫폼 '멜론'은 음악 감상 이력을 상세하게 분석해주는 '마이레코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장 많이 들은 톱 3와 사용자를 설명하는 태그 등을 만들어주고, 이를 SNS에 공유할 수도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누게 하는 것.

미술계의 넷플릭스를 꿈꾸며 '그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는 '핀즐'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큐레이터가 계절·트렌드·사회 이슈를 고려해 선별한 작품을 보내준다. 핀즐은 그림 구독을 국내에 처음 선보인 업체다. 핀즐 대표는 "인테리어를 위해 그림을 걸고 싶은데, 너무 비쌌다"며 그림 구독 플랫폼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처럼 공간에 취향을 채우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핀즐은 흔한 명화 아트 프린트가 아닌, 대표가 직접 접촉해 계약한 해외 40여 명의 전속 작가 작품을 보내주므로 희소성이 있다. 남과 차별화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나의 취향을 전문가의 안목으로 제안해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핀즐이 처음 선보인 그림

정기 구독은 이제 업계의 보편적 서비스가 됐다. 또 다른 미술품 유통 플랫폼 '오픈 갤러리'는 한 대형 아파트 브랜드와 협업해 아파트 공용 공간에 그림을 전시하는 구독형 주거 상품을 내놓았다.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도 눈에 띈다. '중고나라'보다 유명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다른 사람의 거실을 방문해 모임을 갖는 플랫폼 '남의집'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취향과 취향이 만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둘의 만남으로 어떤 플랫폼이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독하는 묘미, 확장하는 즐거움**

이런 플랫폼은 대부분 '구독'이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트렌드 때문이다. 구독은 크게 일정 금액을 내고 재화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배송형'과 일정 금액을 내고 콘텐츠를 무제한 사용하는 '자유형'으로 나뉜다.

구독 서비스가 요즘 세대의 마음을 흔든 이유 역시 이 방식의 '취향과 성향 맞춤' 때문이다. 대부분 업체가 나의 취향을 분석해 좋아할 만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송형은 아예 큐레이션에 맡기는 형태고, 자유형 역시 사용자를 분석해 좋아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의 방식으로 큐레이션 성격을 더한다.

대기업도 다양한 구독 서비스에 뛰어 들고 있다. 2021년 6월,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한 구독 서비스 '구독ON'을 선보였다. 생필품뿐 아니라 청소나 세탁 같은 무형의 서비스도 구독할 수 있으며, 매주 다양한 형태의 정기 구독 상품을 직접 개발해 선보인다. 교육, 간식, 반찬, 패션 등 '구독ON' 서비스로만 살아도 무리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네이버도 스마트스토어 정기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다. 네이버 쇼핑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생필품이나 리필이 필요한 상품 등을 더 저렴하게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구독 서비스를 통해 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한다는 장점도 있다. '전기가오리'는 매달 일정액을 내면 매주 미국과 영국의 다양한 철학 논문과 설명 원고가 담긴 인문학 공부 키트를 발송하는 '철학계의 구몬'이다.

구독으로 일상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구독 서비스는 우리 일상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25조원 정도이던 국내 구독 시장 규모가 2022년 40조원까지 급성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독 서비스로 인해 새는 돈을 관리해주는 앱까지 나왔다. 구독 서비스 통합 관리 플랫폼 앱 '왓셋'은 구독료가 빠져나가는 금융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하는 구독 서비스를 한 번에 관리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만큼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취향을 찾는 여정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 끝에 약간의 지출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 삶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테니 취향이라는 플랫폼에 한번 올라서보는 건 어떨까. ●

**추천 플랫폼**



**테사** 미술품 투자 플랫폼. 시장에서 인정받는 블루칩 아티스트의 작품에 최소 1,000원부터 투자해 분할 소유권을 살 수 있다. 투자한 작품이 팔리면 분할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해당 작품의 소유권 지분에 비례해 매각 수익을 낼 수 있다.

<https://www.tessa.art>



**술담화** 전통주 플랫폼. 인생 술 찾아 한잔하는 취미가 있다면 추천한다. 구독하면 접하기 어려운 국내 2,000여 가지 전통주 중 테마에 맞는 3종을 배송해준다. 각 술에 담긴 이야기나 추천 안주 등을 적은 카드도 제공해 술자리가 한층 풍성해진다.

<https://www.sooldamhwa.com>



**릿츠와인** 단순한 구독 서비스를 넘어 해외 유명 와이너리의 하이엔드급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프리미엄 와이너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 크뤼부터 미국 컬트 와인까지, 발품 팔지 않고 현지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클릭할 것.

<https://letswine.co.kr>



**포인트튠** 영상에 들어갈 음악을 취향에 맞게 직접 만들고 싶다면 음악 플랫폼 포인트튠을 활용해보자. 만들고 싶은 음악을 찾아주고, 취향과 목적에 맞게 편집도 할 수 있다. 음악에 사용한 악기별 소리도 따로 제공해 그럴싸한 곡을 작곡할 수 있다. 미래의 한스 치머를 꿈꾼다면 클릭!

<https://www.pointune.com>



**레슨의신** 피아노, 보컬, 현악기, 관악기, 뮤지컬 등 클래식을 공부하는 전 세계 학생과 선생님을 연결해주는 클래식 레슨 중개 플랫폼. 원하는 장르나 선생님을 골라 바로 예약할 수 있어 편리하다.

<https://www.lesin.co.kr>

# 더 나은 일상으로, 라이프 트렌드 2022

더 이상 우리는 '일상 회복'을 외치지 않는다. 회복을 넘어 바야흐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방식을 생각해야 할 때다.  
2022년, 더 나은 일상을 준비하는 라이프 트렌드 키워드 다섯 가지를 모았다.

Writer. 한소영 Photo. 한경DB, 서터스톡 Reference. <라이프 트렌드 2022>(김용섭, 부키)

## 반려 식물에서 공유 정원까지 가드닝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가드닝이 트렌드로 꼽힐 만한 것인  
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만큼 가드닝은 아주 오래된 개념  
이지만, 최근의 가드닝은 팬데믹과 기후변화라는 이슈로  
방향을 새롭게 수정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재택근  
무가 늘었고, 집의 의미가 확장되면서 집안 가드닝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임에도 가드닝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넘어 사회운동으  
로 확장되면서 가드닝은 공유 정원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되  
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유 정원 브랜드 '서울가드닝클럽',  
비영리단체 '마인드풀가드너스'가 가드닝 문화를 전파하  
고 공유 정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타임워크명동빌딩  
옥상에 자리한 공유 정원  
'녹록 타임워크명동'

## 건강한 삶의 태도로서 비건 비거니즘

요즘 말하는 비거니즘은 의식주 전반에서 드러나는 삶에  
대한 태도와 맥을 같이한다.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은 단순  
히 채식을 하거나 동물 착취 반대를 넘어 기후 위기와 탄소  
배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과 인권 문제 등으로 관  
심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재의 비거니즘은 채식을 하는 비  
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 철학에 공감하는 잠재적 비건  
도 향유한다. 비거니즘에 동조하는 20~30대는 때로 가성  
비를 포기할 만큼 친환경적이고 의미 있는 제품을 소비하  
는 것으로 비거니즘을 실천한다. 패션계도 마찬가지다. 동  
물 털과 가죽을 사용해 극단적으로 미를 추구하는 하이패  
션 브랜드까지 비거니즘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년간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비건 레더를  
만든 구찌는 2021년 6월 비건 스니커즈 라인을 출시했다.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로 꼽히는 에르메스 또한 '빅토리  
아 백'의 비건 레더 버전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가죽 산업 규모는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동물 보호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채식주의자와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점점 환경과 윤리 문제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패션계에서 페이크 레더를 사용하는 추  
세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페이크 레더는 '가짜'라는 좋지  
않은 인식을 벗어던지고 하이패션 브랜드와 첨단 과학 기  
술이 만나 진일보한 개념으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구찌가 선보인 비건  
레더 스니커즈



### 획일적인 맛은 No!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라 크래프트

크래프트는 공예·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수공예(Handcraft, 장인(Master of Craft, Master Craftman) 등과 연결되지만, 수제 맥주나 수제 버거에도 쓰는 말이다. 결국 크래프트라는 개념은 손으로만 만들기보다는 공장에서 기계로 대량생산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미를 뜻한다. 소비자가 가격이 더 비싸고 만드는 과정이 느릴지라도 품질 좋고 개성 있는 제품을 찾기 시작하면서 크래프트 소비가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트 콜라도 출시했다. 2018년 7월, 고바야시 다카히데가 '이요시 콜라'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푸드 트럭에서 시작해 입소문 나면서 지금은 도쿄에 매장을 두 곳 오픈했다. 시나몬, 고수, 바닐라 등 수십 종류의 향신료를 활용해 기존 콜라보다 단맛은 적지만 다양한 향신료 맛을 낸다. 크래프트 관련 산업은 대량생산하는 획일적인 맛이 아닌 좀 더 개성과 취향이 반영된 걸 먹고 싶다는 욕망으로 성장한다. 곰포 밀맥주, 광화문 에일, 제주 위트 에일의 공통점은 모두 크래프트 비어 브랜드라는 것이다. 크래프트 비어는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맥주를 말한다. 대기업 맥주보다 상대적으로 소량으로 생산하고, 개성과 다양성이 유지된다. 획일적인 맥주 맛에 질린 사람들은 꾸준히 특색 있는 맥주를 찾는다. 지역적 특색이나 창의적 발상을 반영한 제품 혹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입맛에 맞는 제품을 찾으면서 크래프트 관련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 작지만 강력한 행동 양식 스몰 액션

스몰 액션이라는 말에는 'Small Action, Big Thought'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작은 일상의 변화가 모여 큰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주변을 바꾸는 스몰 액션은 젊은 세대가 사회나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식이다. 스몰 액션의 예로는 플로깅이 있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에 조깅(Jogging)을 합친 단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한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동호회처럼 모여 동네 쓰레기를 줍기도 한다. 핵심은, 당장 되지도 않는 일을 거창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능한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스몰 액션은 여러 분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제주맥주가 스코틀랜드 위스키사 하이랜드파크와 협업해 출시한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임페리얼 스타우트 에디션'. 사전 예약 3일 만에 준비한 수량 3,000병이 완판됐다.

### 스타일에 규칙과 경계는 없다 언리미티드 스타일

꽤 오래전부터 소수의 패션 셀럽이나 연예인은 일반 대중이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과감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수영복과 일상복을 매치해 입는가 하면 엄숙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 언뜻 피죤해 보이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나타나 예상치 못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식이다. 그만큼 자신에게 당당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이러한 스타일이 이제는 일반 대중도 즐기게 시작했다. 대중 역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연예인처럼 실시간으로 자신의 스타일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찌 됐든 남의 눈치 안 보고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가 점점 늘고 있는 듯하다. 테니스나 골프 등산을 하지 않아도 출근할 때 아웃도어 브랜드 옷을 입거나, 레깅스를 정장과 매치하기도 한다. 수영복이나 레깅스는 탄력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 몸매 보정 효과를 볼 수 있어 실제 운동은 하지 않는 이들의 일상복으로 더 각광받는다. 패션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은 희미해지고, 자유롭고 다양하며 창의적인 스타일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물론 언리미티드 스타일은 패션에 머물지 않는다. 틀에 박힌 관념과 규칙은 여러 분야에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좀 더 나은 대안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 ●



# WOORI BANK GLOBAL NETWORK



● 해외 지점   
 ● 현지 법인   
 ● 사무소

## 해외 지점

**뉴욕지점**  
 TEL 1-212-949-1900  
 FAX 1-212-490-7146  
 ADD 245, Park Ave. 43rd Floor, New York, NY 10167, USA

**LA지점**  
 TEL 1-213-620-0747-8  
 FAX 1-213-627-5438  
 ADD 3360, West Olympic Blvd. Suite 300, LA, CA90019, USA

**런던지점**  
 TEL 44-207-680-0680  
 FAX 44-207-481-8044  
 ADD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UK

**동경지점**  
 TEL 81-3-6891-5600  
 FAX 81-3-6891-2457  
 ADD Shiodome City Center 10th Floor Higashi-Shimbashi 1-Chome 5-2, Minato-ku, Tokyo

**홍콩지점**  
 TEL 85-2-2521-8016  
 FAX 85-2-2526-7458  
 ADD Suite 140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Hong Kong

**싱가폴지점**  
 TEL 65-6223-5854-6  
 FAX 65-6422-2000  
 ADD 10 Marina Boulevard #13-05 MBFC Tower 2, Singapore 018983 Singapore

**바레인지점**  
 TEL 973-17-223503  
 FAX 973-17-224429  
 ADD P.O. Box 1151, 4th Floor, Entrance 1, Manama Centre Building, Manama, Bahrain

**다카지점**  
 TEL 88-02-5881-3270-3  
 FAX 88-02-5881-3241/3274  
 ADD Suvastu Imam Square (1st & 4th Fl.) 65 Gulshan Avenue, Dhaka-1212, Bangladesh

**구르가온지점**  
 TEL 91-12-4304-6700  
 FAX 91-12-4304-6730  
 ADD 1st floor, Salcon Platina Building, MG Road, Sector-28, Sikanderpur, Gurgaon-122001, Haryana, India

**첸나이 지점**  
 TEL 91-44-3346-6900  
 FAX 91-44-3346-6995  
 ADD 6th Floor, EA Chambers, No. 49, 50L, Whites Road, Royapettah, Chennai 600 014, India

**뭄바이지점**  
 TEL 91-22-6263-8100  
 FAX 91-22-6263-8198  
 ADD Unit 601, 6th floor, Birla Centurion, Century Mills Compound, Pandurang Budhkar Marg, Worli, Mumbai, Maharashtra-400030, India

**시드니지점**  
 TEL 61-2-8222-2200  
 FAX 61-2-8222-2299  
 ADD Suite 21.02, 126 Phillip Street, Sydney, NSW, Australia

**두바이지점**  
 TEL 971-4-325-8365  
 TEL 971-4-325-8366  
 ADD 1102A, Level 11, The Gate Building, East Wing, P.O. Box 506760, DIFC, Dubai, United Arab Emirates

## 현지 법인

**유럽우리은행**  
 TEL +49(0)69 299 254 0  
 FAX +49(0)69 299 254 099  
 ADD 29th floor, Messe-Turm, Friedrich-Ebert-Anlage 49, 60308 Frankfurt am Main, Germany

**러시아우리은행**  
 TEL 7-495-783-9787  
 FAX 7-495-783-9788  
 ADD 8th floor, Lotte Plaza, 8, Novinsky Boulevard, Moscow, 121099, Russia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TEL 62-21-5087-1906  
 ADD Treasury Tower 26th, 27th FL, District 8 SCBD Lot 28 Jl.Jend.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WB파이낸스**  
 TEL +855 23 96 3333  
 ADD Buliding 398, Preah Monivong Blvd, Sangkat Boeun Keng Kang 1, Khan Chamkarmon, Phnom Penh 12302, Kingdom of Cambodia

## 사무소

**칼라룸푸르사무소**  
 TEL 60-3-2163-8288  
 FAX 60-3-2163-9288  
 ADD 32F, Menara Prestige, Jalan Pin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우리파이낸스 미얀마**  
 TEL 95-01-643798  
 ADD 115/A, Pyay Road, Saw Bwar Gyee Kone War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베트남우리은행**  
 TEL 84-4-7300-6802  
 FAX 84-4-7300-6806  
 ADD 34F, Keanganm Landmark 72, E6 Pham Hung Road, Tu Liem Dist, Hanoi Vietnam

**브라질우리은행**  
 TEL 55-11-2309-4740  
 FAX 55-11-3511-3300  
 ADD Avenida Nacoes Unidas, 14, 171, Crystal Tower, Conj.803, Vila Gertrudes, 04794-000, Sao Paulo-SP, Brasil

**홍콩우리투자은행**  
 TEL 852-3763-0888  
 FAX 852-3763-0808  
 ADD Rooms 1905-1908, 19/F, Gloucester Tower, The Landmark, 15 Queen's Road Central, Hong Kong

**양곤사무소**  
 TEL 95-01-646951  
 ADD No.115(A) First Floor, Pyay Road, 10 Miles,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우리웰스뱅크 필리핀**  
 TEL 63-32-415-5265  
 FAX 63-32-415-5266  
 ADD Taft Financial Center, Cardinal Rosales Avenue, Cebu Business Park, Cebu City, Cebu

**중국우리은행**  
 TEL 86-10-8412-3000  
 FAX 86-10-8440-0698  
 ADD Floor 11-12, Block A Building 13, District4, Wangjing East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100102

**우리아메리카은행**  
 TEL 1-212-244-3000  
 FAX 1-212-736-5929  
 ADD 330 5th Avenue, 3Floor, New York, NY 10001, USA

# Senior Plus

경험은 삶에서 가장 큰 스승이며 헤안의 원천입니다.

지금껏 겪어온 다양한 경험과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경험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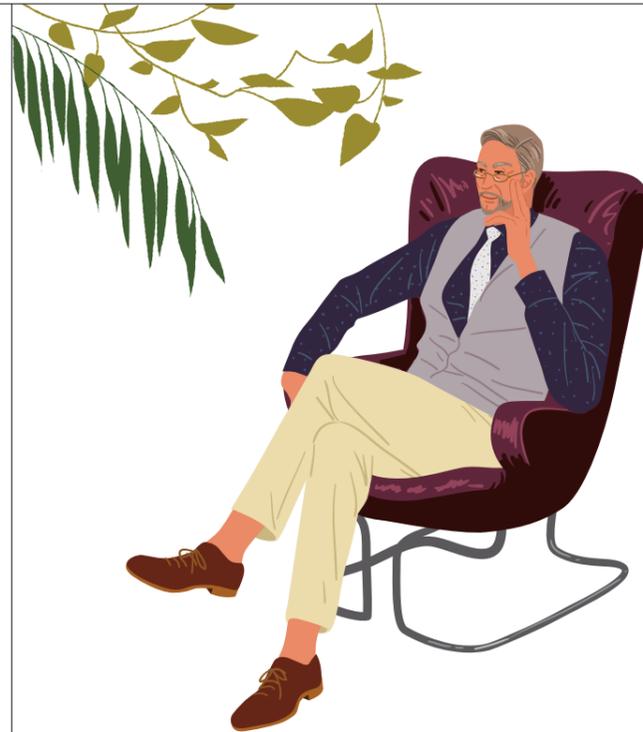
현재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봅니다.

# 우아한 은퇴 라이프를 완성하는 트렌드

세계 각국에는 멋진 은퇴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젊은 시절보다 더 바쁘게, 더 세련되게, 더 유명하게 말이다. 저마다 일상만 다르지만 스타일을 완성하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아한 은퇴 라이프를 위한 몇 가지 트렌드를 제안한다.

Writer: 강은진

94세 미국 할머니 헬렌 루스 윈클@beddiewinkle은 35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스타그램어이자 글로벌 패션 아이콘이다. 할리우드의 스타들도 그녀를 롤 모델로 꼽으며 팬임을 자처할 정도. 우연히 손녀의 핑크색 원피스를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오늘도 과감하고 실험적인 그녀만의 스타일링을 뽐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멋진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 헬렌 루스 윈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영국 에드나@ednaschoice 할머니 역시 화제다. “나는 에드나고, 내가 사랑하는 문학작품을 공유할 것이다”라는 짧은 프로필이 알려진 것이 전부지만, 그녀가 공유하겠다는 문학작품 속이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전원을 배경으로 셰익스피어, 오스카 와일드, 시그프리드 서순 등 대문호의 작품 속 문장을 낭독하는 모습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클래식한 패션 스타일링과 멋진 매너는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으로 다가온다. SNS 속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이 두 할머니에게서 공통점이 여럿 보인다. 나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이지 않고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멋진 패션, 그리고 적극적인 취미 활동이다. 연금이나 재테크로 점철된 은퇴 라이프에 이런 트렌드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다.



## 은퇴 후에도 나의 집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Aging in Place

에이징 인 플레이스란 나이가 들어도 시설 등에서 생활하지 않고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를 관통하는 은퇴 라이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연령이나 소득,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안전하고 독립적이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포함해 복지 선진국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노인복지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제아무리 럭셔리한 시설이라도, 환상적인 파라디사라도 파랑새는 결국 우리 집에 있다고 했던가. 내 집, 내 고향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으랴.

## 지금 패션계는 시니어 뷰티 Senior Beauty

은퇴 이후야말로 멋을 내기 가장 좋은 시기다. 비단 노화를 조금이라도 감춘다는 간절함을 뒤로 하고도 말이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도 백발의 시니어 모델을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복 브랜드 ‘마담토모코 마담 토모코’는 노화로 등이 굽은 여성을 위해 등과 허리가 맞는 옷을 만들면서 뒤끝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름으로 조정된 상의와 하의를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을 정도다. 각국의 명품 브랜드에선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한 지팡이도 선보인다. 또 돋보거나 안경줄, 브로치 하나에도 시니어를 위한 세련된 패션 아이템이 속속 등장하는 중! 노화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변화에 움츠리지 말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보는 것, 삶의 뷰티를 완성하는 첫 시작이다.



## 나만의 파라다이스를 찾아라, 은퇴 이민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따라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해변이 한없이 펼쳐진 곳을 산책하는 기분은 어떨까. 팬데믹으로 국가 간 왕래가 여의치 않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파라다이스로 이주할 꿈꾸는 이가 많다. 미국의 경우 매년 은퇴자를 위해 인기 이민지 순위를 발표할 정도. 남미를 비롯해 태평양 연안의 몇몇 국가는 외국 은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완벽한 기후와 낮은 세율, 편의성, 저렴한 물가 등 매력적인 조건의 은퇴 이민은 언제나 은퇴 라이프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 클릭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실버 서퍼 Silver Surfer

요즘 은퇴자들은 와이파이를 이용해 뉴스를 검색하고, 모바일뱅킹으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멋진 셀카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업데이트하며 친구들과 공유한다. 이른바 실버 서퍼다. 인터넷을 즐기는 중장년 이상의 사람을 일컫는 말로, IT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상승하고 있을 정도! 클릭 한 번으로 꿈과 모험의 세계로 떠나보자.



## 삶의 질을 높이는 취미 생활, 신나는 주객 전도

젊은 층 못지않은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능력과 뒷받침되는 경제력,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가 차원이 다른 취미 문화를 만들어낸다. 활발한 취미 활동으로 히말라야를 등반해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아마추어에 불과하던 실력을 키워 프로로 데뷔하거나, 뒤늦게 열심히 공부해 꿈꾸던 직업을 갖기도 한다. 은퇴 전에는 소일거리 삼던 취미 활동이 삶의 중심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정교한 코스의 정석

‘고향의 정이 느껴지는 서원밸리’라는 슬로건 아래 자연, 순수, 인정의 편안함을 지향하는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100만 평 규모에 고품격 회원제로 운영하는 서원밸리 18홀과 명품 퍼블릭 27홀은 명문 클럽의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Writer: 강은진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은 샷 가치, 난이도, 디자인 다양성, 기억성, 심미성, 코스 관리 등 여섯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골프매거진> 선정 ‘한국 10대 코스’에 18년 동안 9회 연속 오른 우리나라 최고 명문 클럽이다. 특히 9회 연속 선정된 골프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원밸리를 비롯해 단 세 곳뿐이라고 하니, 최고라는 수식을 붙이기에 충분하다. 서원(西園)은 ‘상서로운 곳’이라는 뜻으로 파주의 옛 이름이다. 과거 임금 사냥터인 금병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70~170m 정남향 분지형 코스로, 완만한 구릉과 평지에 페어웨이를 널찍하게 앉혔다. 무엇보다 전장이 긴 편이라 멀리 마음껏 치기 좋은 밸리 코스와 정교한 서원 코스로 조성한 18홀 규모의 서원밸리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명품

코스로 손꼽힌다. 또 100만 평 규모에 국제 대회 유치가 가능한 전장을 갖추고 각종 골프 대회를 개최한 서원밸리는 코스를 최상으로 관리한다. 짧게 깎기 어렵다는 중지 잔디를 대회 기간에는 12mm까지 깎아 페어웨이를 윤기 나게 만드는 것. 세미 러프는 45mm·헤비 러프는 65mm 정도로 관리하며, 평소 그린은 스티มป์미터 Stimpmeter 계측 기준 2.9m, 대회 때는 3.5m로 유지한다. 이런 정교한 관리 능력은 서원밸리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이 밖에도 4층 규모의 90타석 300야드의 드라이빙레인지와 세계적 골프 설계가 데이비드 데일 David Dale이 설계한 투어 프로용 쇼트 게임장, 피트니스센터와 최첨단 편의 시설까지 갖춰 클럽의 정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의 코스 공략법

### 플레이어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밸리 8번 홀

계단식으로 배치한 티잉그라운드와 메타세쿼이아가 늘어선 풍경은 아름다우면서 골퍼의 도전욕을 자극한다. 왼쪽에 워터해저드가 자리해 아일랜드 그린을 연상시키는 홀로, 정확한 거리감이 필요하지만 오른쪽이 개방되어 있어 편안하게 공략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린 왼쪽 워터해저드를 고려해 오른쪽을 보고 티샷하는 것이 좋다.  
**Par3** Blue 184m, White 177m, Gold 137m, Red 127m



### 가장 아름다운 파5홀로 선정된 서원 2번 홀

3개의 워터해저드가 섬세한 정원 조각품처럼 자리하고,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페어웨이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골프매거진>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5홀'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림 같은 풍광 사이로 똑바로 치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공이 워터해저드에 빠지거나 숲에 들어가는 일이 흔해 '장미의 가시 홀'이라고도 부른다. 레귤러 티에서는 260야드 지점의 페어웨이 양쪽 벙커 사이를 겨냥해야 하며, 프런트 티에서는 페어웨이 중간 지점인 280야드 워터해저드를 고려해야 한다.

프런트 티에서는 페어웨이 중간 지점인 280야드 워터해저드까지 고려해야 한다.  
**Par5** Blue 548m, White 514m, Gold 471m, Red 451m



### 아일랜드 티잉 구역 서원 9번 홀

골프장마다 '아일랜드 홀'은 많지만 '아일랜드 티잉 구역'은 극히 드물다. 9번 홀은 레귤러 티보다 조금 앞에 자그마한 섬 모양 티잉 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티샷에 따라 성공적 세컨드 샷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이고 정확한 티샷이 요구된다.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므로 세컨드 샷은 그린 왼쪽의 벙커를 보고 날려야 한다. 티샷하는 사진을 찍기 좋은 인기 포토 존이기도 하다. ●

페어웨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므로 세컨드 샷은 그린 왼쪽의 벙커를 보고 날려야 한다.  
**Par3** Blue 388m, White 356m, Gold 336m, Red 291m





## 서원밸리 컨트리클럽 근처 맛집

골퍼 중에는 유난히 미식가가 많다. 그래서일까, 골프장 주변에는 맛있는 식당도 많다. 외진 곳인데도 큰 음식점이 있다면 필시 근처에 골프장이 있을 것이다. 라운딩 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필수!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이 자리한 파주 지역의 맛집을 소개한다.



장어 요리의 명가  
반구정나루터집

파주에서 장어 맛집으로 유명하다. 반구정은 오래전부터 장어로 유명한 곳이다. 반구정나루터집은 반구정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장어 맛집이다. 장어 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 한옥에 앉아 고즈넉한 정취를 즐기며 장어를 맛볼 수 있다. 장어간장구이와 장어소금구이가 대표 메뉴이며, 장어죽과 메기매운탕도 인기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 #반구정 #장어맛집 #장어죽 #메기매운탕  
영업시간 11:30~22:00  
문의 031-952-3472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반구정로85번길 13



푸짐한 한상 차림의 정석  
심학산 뜨락

보리굴비와 가마솥밥이 맛있는 파주 한정식집. 정갈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이곳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심학산 둘레길을 찾은 등산객과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쇼핑객으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보리굴비 정식부터 뜨락 정식, 황태구이 정식, 간장계장 정식까지 푸짐한 한상을 제공한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 #심학산 #파주한정식 #보리굴비정식  
영업시간 11:00~21:00(라스트 오더 20:00)  
문의 031-941-9202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돌곶이길 136



오감만족, 예쁜 한상 차림  
토향

파주 프로방스 근처에 자리한 정원이 예쁜 썸밥집. 건강한 식자재로 맛깔스럽게 음식을 차려 내는 곳으로 유명하다. 삼겹참숯구이, 낙지직화볶음, 매운불고기전골 등이 이곳의 대표 메뉴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 #프로방스 #삼겹참숯구이 #낙지직화볶음  
영업시간 10:30~22:00(라스트 오더 20:50)  
문의 031-945-1511 | 주소 경기도 파주 탄현면 성동로 19-87



진짜 장단콩으로 만든 두부  
통일동산두부마을

시골 향기와 퓨전 향기, 두 가지 향기로 회자되는 곳. 시골 향기는 옛날 방식 그대로 구수하게 띄운 청국장과 콩비지를, 퓨전 향기는 한방 재료와 함께 삶아낸 푸짐한 보쌈과 얼큰하고 시원한 두부버섯전골을 내놓는다. 좋은 식자재에 손맛을 더해 명성을 얻고 있는 맛집이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 #탄현면 #청국장 #콩비지 #두부보쌈  
영업시간 06:00~00:30(금-토요일 00:00~24:00)  
문의 031-945-2114 |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필승로 480

## 원조의 포스가 가득한 그릇 파주닭국수 파주 본점

닭 반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닭국수 맛집이다. 닭을 넣어 푹 끓인 닭국수는 얼큰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 식당 안에는 그 맛에 매료된 사람들로 가득하며, TV 맛집 프로그램에서도 호평한 곳이다. 닭국수뿐 아니라 불고기국수, 들깨닭국수, 매운닭국수도 있다. 또 닭 가슴살로 만든 안심탕수도 이곳의 인기 메뉴로, 두툼한 튀김을 상큼한 레몬 소스에 찍어 먹는다.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손님을 위해 불고기비빔밥도 준비돼 있다.

#서원밸리컨트리클럽 #새꽃로 #닭국수 #안심탕숙 #불고기비빔밥  
영업시간 11:00~21:00(토요일 및 공휴일 20:00까지, 재료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 031-945-8793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307



# 에이미 조의 원 포인트 레슨 골린이도 가능한 ‘퍼팅의 신’ 되는 법

아마추어 골퍼도 프로 골퍼와 거의 같은 동작이 가능한 클럽이 있다. 바로 ‘퍼터’다. 퍼팅의 기본 셋업과 두 가지 방법만 열심히 익히면 프로 골퍼처럼 퍼팅할 수 있다. 에이미 조가 알려주는 퍼팅의 기본기를 배워보자.

Writer: 에이미 조

골프의 완성은 퍼팅이다. 모든 샷이 그렇지만, 퍼팅은 골프의 다양한 샷 중에서도 특히 예민하다. 0.5도만 오류가 나 도 미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거리감과 방향감, 터치 강도 등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하기에 퍼팅을 예술의 영역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럼에도 퍼터는 드라이버나 아이언 등에 비해 근력과 유연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연습만 열심히 하면 퍼팅의 신, 즉 ‘퍼신’이 될 수 있다.

퍼신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스트로크로 일관된 거리를 내야 한다. 정확한 셋업으로 일정하게 스위트 스폿에 맞추는 훈련이 도움 된다. 퍼팅에서 스위트 스폿은 매우 중

요하다. 스위트 스폿에 맞췄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공의 반응은 다른 샷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퍼팅의 셋업을 그 어떤 샷의 셋업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잘 잡아줘야 한다. 퍼팅의 기본 셋업은 우선 퍼터 헤드 솔 바닥 부분을 땅에 평편하게 둔다. 토 또는 힐이 들리면 임팩트 시 스위트 스폿에 맞추기 어렵다. 두 발은 어깨너비 정도로 벌리고 상체를 아이언 셋업보다 많이 숙인다. 왼쪽 눈은 공 위에 오도록 맞춘다. 그러면 아이언 셋업과 달리 팔뚝이 샤프트와 일자를 이룬다. 이때 왼쪽 손목이 앞으로 튀어나 온 느낌이 들면 제대로 셋업한 것이다. 퍼팅에서 공을 원하

는 지점으로 정확하게 보내려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피니시까지 모두 직선이 되어야 한다. 공을 중앙에서 반 개 혹은 한 개 정도 왼쪽에 두면 왼쪽 눈 아래 공이 위치한다. 그러면 스트로크 시 최대한 똑바로 백스윙과 다운스윙을 만들 수 있다. 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공을 왼쪽 눈에서 떨어뜨리거나 거울 앞에서 눈과 공의 위치를 점검해보면 좋다.

## 에이미 조만의 노하우, 두 가지 퍼팅 방법

앞서 말한 셋업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지금부터가 퍼팅의 신이 될 수 있는 에이미 조만의 특급 노하우다. 첫 번째 방법은 왼발 앞꿈치에 2% 정도 힘을 더 실는 것이다. 이때 힘을 실는 것이 눈으로 볼 때 티가 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어택 앵글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 미세한 차이지만 퍼팅 스트로크를 할 때는 큰 변수가 된다. 이 힘이 면적이 넓은 발바닥으로 가면 스위트 스폿에 일정하게 맞출 수 없다. 특히 가파른 경사에서 퍼팅할 때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경사에서 발바닥 중심이 움직이면 통상 중력으로 인해 경사가 낮은 쪽으로 당겨지고, 스위트 스폿을 크게 놓치기 마련이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팔꿈치 위치다. 퍼팅에서도 어깨와 그림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을 유지한 채 상복부 부

위로 어깨를 움직여 스윙해야 한다. 이때 팔꿈치를 약간 안쪽으로 돌린다. 팔꿈치를 몸통 안쪽으로 돌리면 겨드랑이가 몸통에 잘 붙어 삼각형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 커넥션이 좋아 상복부 부위로 어깨를 움직일 수 있다. 만약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리면 겨드랑이가 몸에 붙지 않아 스트로크를 할 때 삼각형이 흔들리고, 팔 힘으로 치게 돼 퍼팅 스트로크가 점점 나빠질 수 있다. 아마추어 골퍼가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팅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셋업이 어떤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셋업만 잡아줘도 골린이에서 퍼신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데 성공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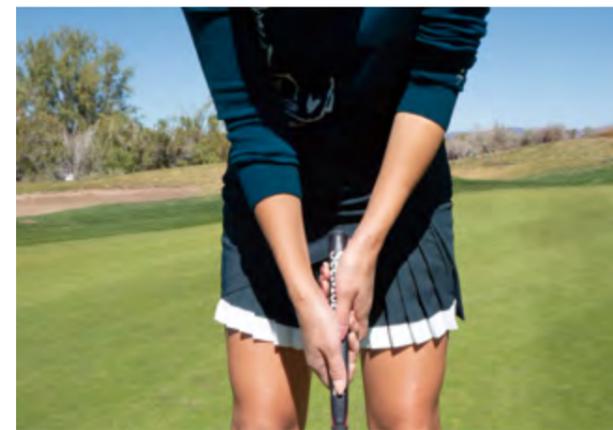
에이미 조의 퍼팅 셋업 강의  
에이미 조의 퍼팅 비법을  
동영상으로 쉽게 배워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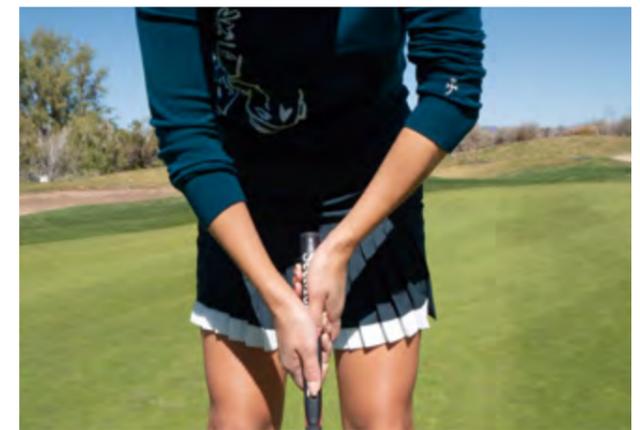
**퍼터 셋업 정면**  
스탠스는 어깨너비로 서고 퍼터 헤드 솔 부분이 땅에 평편하게, 상체는 아이언 셋업보다 많이 숙인다.



**퍼터 셋업 측면**  
볼은 중앙에서 볼 반 개 또는 한 개 정도 왼쪽에 두고, 눈 아래 공이 위치하게 한다.



**올바른 퍼팅 팔꿈치 정면 모습**  
팔꿈치를 몸통 안쪽으로 돌리면 겨드랑이가 몸에 잘 붙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잘못된 퍼팅 팔꿈치 정면 모습**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향하면 삼각형이 흔들리고 퍼팅 스트로크가 나빠진다.



## 키워드로 알아보는 실버타운 지침서

실버 세대의 건강한 삶을 돕는 실버타운이 주목받고 있다. 요모조모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선택의 기준을 잡기 막막하다면 우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키워드를 꼽아보자.

Writer: 한소영 Photo: 셔터스톡

### KEYWORD1

## URBAN

### 도시 생활자를 위한 실버타운, 서울시니어스타워·하이원 빌리지

실버타운에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갑자기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은 유지하면서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의 삶을 꾸리는 것이다.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그 생활이 편리하며 즐겁다고 생각한다면 도시 속 실버타운을 알아보자. '서울시니어스타워'는 한국에 처음 생긴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과 분당, 고창을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신뢰도 높은 실버타운으로 서울은 중구에 자리해 있다. 이곳의 모기업인 서울 송도병원이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므로 만일의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20~90평대 규모이며, 시내 중심부에 있어 서울 어디든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다.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하이원 빌리지' 역시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자리한다. 20~50평대의 노인 전용 주거 시설로 설계해 생활하기 편리하며, 주변의 여러 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울시니어스타워**  
입주 보증금 약 1억9,500만원  
관리비 월 88만6,900~135만5,900원 +  
식비 51만7,500원(1인 90식 기준)  
주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 72  
문의 02-2232-9003

**하이원 빌리지**  
입주 보증금 약 2억6,000만~6억3,000만원  
관리비 월 89만6,000~167만7,000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24  
문의 02-790-3843

### KEYWORD2

## SUBURBAN

### 고즈넉한 교외 생활의 시작, 삼성노블카운티

도시 근교에 자리해 교외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도심 생활의 편리함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용인시에 자리한 '삼성노블카운티'는 약 22만5,000m<sup>2</sup>(6만8,000여 평)의 드넓은 단지를 자랑한다. 작은 둔덕과 산책로, 연못가 정원 등이 자리해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고 직접 텃밭까지 가꿀 수 있다. 의료·요양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지 내 의료 센터에서는 정기 건강검진과 주치의 서비스 및 물리치료가 가능하다. 각종 문화생활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스포츠센터와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며 문화·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입주 보증금 약 2억1,000만~9억7,000만원  
임대료 월 60만원  
관리비 월 162만~276만원 +  
식비 67만원(1인 90식 기준)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문의 031-208-8000

KEYWORD3

# COUNTRY

## 텃밭을 가꾸는 전원생활, 청심빌리지

요즘은 만 60세가 지나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 숨 가쁜 스케줄에 몸을 맞추며 살아온 이들은 조금씩 자연을 돌아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친다. 서울 근교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자리한 '청심빌리지'는 이러한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이다. 야외에는 파크 골프장과 텃밭·산책길 등이 조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가평군 전체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을 통해 건강검진과 진료, 물리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화 감상실과 피트니스센터 등 실내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벼운 취미 생활과 운동하기에 편리하다.

**입주 보증금** 약 1,000만~1억5,000만원  
**관리비** 월 95만~145만원 + 공과금 월 7만원 + 식비 42만원(1인 60식 기준)  
**주소** 경기도 가평군 미사리로 191-16  
**문의** 031-589-5342



서울시니어스타워



더 클래스 500

KEYWORD4

# LUXURY

## 최상급 시설과 호텔식 서비스, 더 클래스 500

'더 클래스 500'은 최상급 수준의 실버타운으로 많은 실버 세대에게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피트니스센터·스파·골프 연습장 등 여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댄스스포츠·합창단·바둑 등 다양한 클럽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우스키핑과 발레파킹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준 높은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국대학교병원 전문의와 전담 부서가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와 운동법, 영양 관리를 맡고 있다.

**입주 보증금** 약 9억원  
**임대료** 약 월 87만~133만원  
**관리비** 월 213만원 + 공과금 월평균 30만원 + 식비 26만원(1인 20식 기준)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90  
**문의** 02-2218-6000

KEYWORD5

# HEALTHY

##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마리스텔라

'마리스텔라'는 가톨릭대관동대학교국제성모병원, 성모요양원이 함께 자리한 실버타운 단지다. 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 응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해결·관리하는 데 아주 유리하다. 천주교 인천교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1층 성당에서 매일 미사를 진행하며, 이러한 종교 시설 덕분에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입주민은 서예, 텃밭 가꾸기, 게이트볼 등 동호회를 자유롭게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즐긴다. 단지 내 일반 상가와 푸드 코트가 있어 편리하고, 외부인 방문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다양한 세대와 마주치면서 단절된 느낌을 덜 수 있다.

**입주 보증금** 약 2억4,700만~4억원  
**임대료** 월 31만9,000~45만1,000원  
**관리비** 월 79만2,000~138만원 + 식비 31만5,000원(1인 45식 기준)  
**주소** 인천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31  
**문의** 032-280-1500



삼성노블카운티



마리스텔라

KEYWORD6

# ECONOMY

## 소박하고 정감 있는 단지, 부영실버타운아파트

10~20평대로 구성할 150세대 소규모 아파트형 실버타운이다. 노인대학, 게이트볼장, 요양병원 등 시설을 무료 또는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식사는 직접 해 먹거나 복지관 식당에서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 하루 여섯 번 시내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외부 출입이 편리하다. 입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분위기가 조용한 것 또한 큰 장점으로 꼽힌다. ●

**입주 보증금** 약 2,000만~4,000만원  
**관리비** 세대별 공과금만 납부  
**주소** 전북 김제시 하동1길 79-1  
**문의** 063-545-0343



## 비로소 느끼는 1%의 차이 위스키 테이스팅의 정석

위스키 테이스팅은 결코 좋은 위스키와 나쁜 위스키를 판별하는 과정이 아니다. “좋은 위스키와 더 좋은 위스키만 있을 뿐이다”라는 스코틀랜드의 격언처럼 저마다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 맛의 차이가 결정되는 위스키 테이스팅의 세계, 그 음미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보자.

Writer: 강은진 Reference: <싱글 몰트 위스키 바이블>(유성운 지음, 위즈덤하우스)

### 취향을 찾아가는 여정

위스키가 국내에 소개된 지도 100년이 넘었다. 그러나 아직도 위스키 테이스팅 Whisky Tasting을 생소하게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 위스키를 음미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탓이다. 위스키 테이스팅은 자신의 위스키 취향을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제대로 음미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시작은 시간과 장소의 선택이다. 전문가들은 오전 10시가 테이스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몸의 컨디션이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여유로운 시간과 음식 냄새가 심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 실내면 족하다. 이때 무엇보다 글라스 선택이 중요하다. 조각이나 무늬가 없고, 색깔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없는 투명한 글라스여야 한다. 아래위가 좁은 튜립 모양이 이상적이다. 단, 스트레이트 잔만은 피하자. 잔이 작아 향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향을 음미하기 부적합하다.

이번엔 색이다. 위스키 색이 옅거나 연한 노란색인 경우, 이번 통에서 숙성시켰거나 여러 번 재사용한 통에서 숙성시켰을 확률이 높다. 스페인에서 가져온 셰리 통에 숙성시켰다면 짙은 호박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이다. 여러 위스키를 혼

합하는 블렌드 위스키는 색에 대한 주목도는 낮지만, 서로 비슷한 향을 지닌 위스키는 색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 맛과 향, 질감 그리고 피니시

이제 글라스에 위스키를 따르고 스월링 Swirling을 통해 닫혀 있던 향이 발산되길 기다릴 차례다. 이때 글라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위스키의 눈물, 일명 레그 Legs를 보자. 속도가 빠르다면 향이 가벼운 라이트한 보디감을, 천천히 흘러내리면 향이 진한 풀보디감의 위스키다. 색과 향, 그리고 레그까지 충분히 즐겼다면 이제 한 모금 머금어보자. 처음에는 단맛·신맛·짠맛·쓴맛·매운맛을 먼저 느끼며 보디감을 구별하고, 그다음 향을 찾게 된다. 잘 만든 위스키는 코로 느껴졌을 때 향이 좋으며 입으로 즐길 때도 향이 좋다. 위스키를 머금고 있다가 목으로 삼킨 후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향을 피니시라 한다. 대부분 피니시의 길이로 평가하는데, 오래 숙성된 위스키일수록 긴 피니시를 보인다. 1시간 이상의 긴 피니시를 보여주는 훌륭한 위스키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혀끝으로 느끼는 1% 차이를 알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정석이다. ●

#### 위스키 마시는 방법



##### 니트 Neat, 스트레이트

위스키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위스키 그 자체를 즐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자 이상적인 방식을 말한다.

##### 체이서 Chaser

위스키를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곧바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방법. 전통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물 대신 맥주를, 중화권에서는 차를, 그리고 요즘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커피를 마시기도 한다.

##### 온더록스 On the Rocks

위스키에 얼음을 넣고 즐기는 방식으로 천천히 음미하기 좋다. 하지만 위스키 향을 즐기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온더록스로 마실 때는 최대한 크게 얼린 얼음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 미즈와리\*水

일본 위스키 회사 산토리에서 개발·보급한 방식으로, 위스키에 찬물과 얼음을 넣어 마신다. 위스키에 탄산수를 섞어 하이볼로 만들어 청량감 있게 즐기는 방식도 있다.

## 당신이 알던 그 상식은 틀렸다!?

# 건강 상식 팩트 체크

새해를 맞아 운동과 다이어트 계획을 촘촘히 세우는 중이라면 주목.  
그 전에 당신이 알고 있던 건강 상식이 맞는지부터 먼저 체크하자.  
더욱 건강한 2022년을 위한 건강 상식 업그레이드 타임!

Writer: 유나리 Photo: 셔터스톡

### 01 About Food

**Q** 속이 쓰릴 땐 우유를 마셔라?

**Yes No**

매운 음식을 먹거나 속이 쓰려 위를 보호한다고 컵에 우유를 따랐다면 조용히 내려놓자. 오히려 속을 아프게 하는 습관이다. 우유 속에 들어 있는 칼슘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카세인 같은 단백질 성분을 체내에서 분해하기 위해서도 위산은 더 많이 나온다.

**Tip** 속이 쓰리면 병원에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니면 양배추나 감자 같은 비타민 U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쓰린 속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Q** 유산균, 바나나와 먹으면 효과 100배?

**Yes No**

유산균은 살아 있는 균이라 먹이가 필요하다. 먹이를 충분히 공급한 최상의 환경에선 유산균 1마리가 최대 2,500억 마리까지 증식할 수 있다는 사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을 '프리바이오틱스'라 한다. 주로 바나나, 양파, 아스파라거스, 우엉, 마늘, 돼지감자, 치커리 등에 많이 들어 있다. 고로 이 이야기는 사실!

**Tip**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식품은 유해균 증식을 늘려 유산균의 효능을 떨어뜨리니 같이 먹으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Q** 하루 세끼 김치를 먹으면 식이섬유는 충분하다?

**Yes No**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다. 김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큰 효과가 없다. 김치 100g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고작 3g 남짓. 성인의 식이섬유 하루 권장량인 25~30g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식이섬유 권장량을 채우려면 김치 1kg을 먹어야 하는데, 이는 김치 반 포기에 달한다. 게다가 시판 포장 김치 제품 100g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569.58mg으로, WHO가 권고하는 성인 1인 나트륨 권고량 2,000mg의 28.5%에 달한다. 식이섬유 채우려다 오히려 나트륨을 과잉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Tip**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싶다면 차라리 잡곡밥이나 해조류, 버섯 등을 충분히 먹자. 양 대비 효용이 좋다.



**Q**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한다?

**Yes No**

섬유질은 배변에 도움을 주고 과민성대장증후군 치료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만약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은 사람이 대장 질환 가능성이 낮았다면, 이는 단순히 섬유질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을 먹을 가능성이 높다. 또 대장 입장에서 보면 섬유질은 소화가 잘 안 되는 자극제이자, 비타민이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억제제이기도 하다는 사실.

**Tip** 섬유질을 섭취한다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채소 형태로 먹을 것. 가공식품에 첨가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Q** 사골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Yes No**

흔히 성장기 어린이의 뼈 성장을 위해 푹 곤 사골을 먹이는데, 아쉽게도 사골과 뼈 건강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사골에는 단백질, 칼슘, 인 외에 콜라겐, 지방 등이 풍부하긴 하나, 뼈 성장을 돕는 칼슘은 소량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사골국 1회 제공량인 400g 안에 든 칼슘은 14.14mg으로 1인 영양 성분 기준치의 2%에 불과하다. 이 칼슘도 체내에 100%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인이 칼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 따라서 사골 속 칼슘 성분 중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은 아주 아주 적다는 사실.

**Tip** 뼈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차라리 우유를 마시자. 사골 1회 제공량과 같은 분량의 우유에는 사골국의 8배가 넘는 116mg(16%)의 칼슘이 들어 있다.



## 02 About Healthy Lifestyle

**Q** 땀을 많이 흘릴수록 운동 효과가 좋다?

Yes **No**

일명 '땀복' 애호가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땀의 양과 운동 효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땀은 단순히 체내 수분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운동함으로써 높아진 체온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현상이다. 물론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져 몸무게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는 탈수만 일으킬 뿐 다이어트로 이어지지 않는다. 운동 중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 성분도 같이 배출돼 오히려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Tip** 땀복은 보조 차원으로 활용하자. 운동 전에 땀복을 입고 체온을 적당히 높여두면 부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본격적으로 운동할 땐 땀복을 벗고, 땀을 흘려 낮아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후에 입자.



**Q** 하루 만 보는 걸어야 건강해진다?

Yes **No**

만보기가 있을 정도로 '하루 만 보=건강'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상술에 가깝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끝난 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한 업체가 걸음 수 세는 기계를 선보이며 판매 촉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특별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고. 미국 의학협회 저널 네트워크 JAMA Network 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다. 하루 1만 보를 걷는 사람은 하루 4,000보를 걷는 사람보다 심장질환 등으로 일찍 죽을 위험이 더 높았다.

**Tip** 몇 보를 걷는 데 집착하기보다 하루 30분 정도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걷고, 근력 운동을 같은 비율로 함께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Q** 그래, 양치엔 소금이 최고지!?

Yes **No**

치약 대신 소금으로 양치하는 사람이 꽤 있다. 하지만 양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굵은소금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내 세균이 침투하거나 이를 시리게 만들 수 있으니 치약을 사용하자. 소금의 삼투압 작용 때문에 점막 손상도 입을 수 있다. 과학 문명을 믿자.

**Tip** 양치 후 소금물로 간단히 입을 헹구는 정도로 마무리하자. 적당한 살균 효과가 있어 감기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03 About Disease

**Q** 뻗뻗해지는 뒷목, 고혈압의 신호다?

Yes **No**

아쉽게도 고혈압은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목이나 뒷머리가 뻗뻗해지는 것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성 두통이나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다. 긴장성 두통은 머리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생긴다. 머리, 목, 등 근육은 서로 연결돼 있어 딱딱하게 굳으면 목덜미가 뻗뻗해지기도 한다. 다만, 이미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해볼 만하다. 수축기 혈압이 160~180mmHg 이상까지 크게 올라가면 뇌압이 높아지고 뒷목이 뻗뻗해질 수 있다.

**Tip**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면 사라진다. 악성고혈압 환자의 경우, 고혈압성 뇌증이 발병하면 심한 두통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Q**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

Yes **No**

밥 먹고 바로 눕는다고 살이 찌진 않지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와 식도 사이의 식도 조임근이 느슨해져 위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 안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와 식도가 평형을 이루면서 중력이 수평으로 작용해 남아 있던 음식이 식도로 넘어오기 딱 좋다. 특히 밤늦게 야식을 먹고 바로 자는 습관은 가장 좋지 않다.

**Tip** 야식은 최대한 피하되, 어쩔 수 없이 먹었다면 적어도 2시간 이후에 취침하자.



**Q** 갑상샘암 환자는 다시마나 미역을 먹으면 안 좋다?

Yes **No**

흔히 갑상샘암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등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이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 갑상샘암 환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두고 2주간 요오드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는 갑상샘 조직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성질을 활용한 치료법으로, 치료 전 요오드를 고갈시키기 위해 2주간 요오드 식품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요오드에 목마른 갑상샘 조직이 방사성 요오드를 제대로 흡수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 즉 치료를 앞둔 환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요오드 함유 제품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Tip** 갑상샘항진증 환자라면 호르몬 요오드 제한이 필요하므로 미역, 다시마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TWO CHAIRS 특화 서비스

TWO CHAIRS 특화서비스는 국내외 각 분야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호텔 디너 초청, 골프 아카데미, 헬스 케어, 웰빙 푸드 등 고품격 서비스를 우리은행 TCE\* 고객님께 제공합니다.



우리WON플러스



호텔 디너 초청



골프 아카데미



헬스케어



웰빙 푸드



**대상** A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3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300만원 이상 고객(10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B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1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150만원 이상 고객(5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C등급 직전 반기 금융수신 평잔 3~10억원 이상 및 기여손익 100만원 이상 고객(2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신규진입고객 최초 1회

**선정 주기** 고객별 연 1회(상·하반기 중 선정)  
**선정 안내** 주거래 영업점 담당 PB를 통한 안내  
**유효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

**문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우리은행 주거래 영업점 TWO CHAIRS 창구 담당자 앞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CE (TWO CHAIRS Exclusive) 란?

금융수신 10억원 이상인 우리은행의 Private Banking 고객 등급을 말합니다.

우리은행 TWO CHAIRS

## Wealth &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 전문가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 전문가에게 얻은 발 빠른 정보를 통해 투자와 부에 대한 혜안을 지닐 수 있습니다.

※ 본 기사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 상품, 서비스 제공 및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내용도 투자, 세금, 법률, 여타 전문 상담 또는 특정한 사실과 문제에 관한 자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각종 수익률과 위험, 전망 등은 과거의 수익률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스스로 해야 하며, 당행은 투자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달라지는 시장 환경, 현실을 직시하라 2022년 주식시장 전망

2021년의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격적 투자에 따른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글로벌 &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자.

Writer: 윤세욱(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투자전략팀 애널리스트) Photo: 셔터스톡

### 2021년 주식시장 리뷰

2021년 글로벌 주식시장은 머니 러시 현상과 차별화라는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동학(또는 서학)개미로, 중국에서는 청년부추로, 또 미국에서는 로빈 후드와 월스트리트베츠로 대변되는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들이 증시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테마 주식의 급등을 이끌기도 했기 때문이다. 'Gen-Z' 세대 투자자들은 주식, 가상화폐, NFT,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들이는 '야성적 충동 Animal Spirit' 으로 2021년 내내 글로벌 위험 자산 시장을 이끌어왔다.

주식시장으로 좁혀보면 테슬라를 비롯한 나스닥 종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신성장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대형 기술주 내 신규 IPO 종목들도 거센 투자 열풍에 휩싸였다. 연초에는 게임스톱, AMC 등 잇힌 페니 주식에 대한 월스트리트베츠 이용자들의 거센 매수세로 공매도를 해온 헤지펀드들의 숏커버링을 유도해 이들의 백기 투항을 유발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개미들이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는 전제하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다

양한 모바일 콘텐츠와 정보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의 평등화, 일부 헤지펀드만 이용하던 투자 기술의 대중화, 테크로 무장한 Gen-Z세대의 대거 증시 유입 등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진국 vs 신흥국의 뚜렷하던 양극화 현상

2021년 글로벌 주식시장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별화된 흐름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표 주가지수들의 최상위 주식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식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주가가 급락해버렸다. 특히 신흥국 주식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 대형 기술주들은 나스닥 대형 기술주와 달리 대부분 연초 이후 마이너스권의 주가 상승률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따른 테크 기업 규제였다. 공동부유론을 통해 중국 3대 지도자로 등극한 시진핑 주석은 대기업과 대자산을 압박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함께 잘사는' 사회인 공동부유사회를 이루려는 원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큰 규제 없이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주식예탁 증권<sup>DR</sup> 형태로 상장해 글로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중국 기술주들의 사업 행태는 거대한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에 따라 DR들의 주가는 많게는 9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시장의 혼란을 틈타 신흥국 증시 내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지수 상승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인도와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환태평양 전략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며, 중국에서 이전되는 제조업 공장들이 재배치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 국가로 대두되었다. 이는 2022년 이후에도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남아시아와 동남아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하면

연초 이후 수익률(%)

구분	종목	2020년	2021년	YTD
		12월 31일	12월 6일	
종목	Amc 엔터	2.16	28.79	1,232.9
	게임스톱	19.26	167.12	767.7
	나스닥	12,888.28	15,225.15	18.1
지수	코스피	2,873.47	2,973.25	3.5
	항셱H	10,738.4	8,274.77	-22.9
가상화폐	Axie	12,490 (WON, 2021.4.5)	131,350	951.6

자료 블룸버그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실시하며 금리인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았고,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견디지 못하고 브라질·멕시코·한국 등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서 코로나19 이후의 글로벌 성장 동력으로 풍부한 IT 인력과 젊은 인구를 보유한 두 나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2022년 글로벌 & 국내 주식시장 전망

### 1) 선진국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선진국 대표 지수라 할 수 있는 S&P500 지수는 연초 이후 24.3% 상승한 반면, MSCI EM 지수는 5.1% 하락한 상태다. 무려 29.4%의 단순 수익률 차이가 나타나 신흥국 지수에만 투자한 사람에게 2021년은 지옥 같은 한 해가 되었을 수도 있다.

규제가 강화된 중국 주식가격



자료 인포맥스

2022년에도 선진국 증시는 신흥국 대비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한다. S&P500 지수의 2022년 주당순이익 전망치는 약 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MSCI EM 지수 기준의 2022년 주당순이익 전망치는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의 팬데믹 이후 주식시장의 급반등을 이끈 머니 무브 Money Move에는 글로벌 저금리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큰 역할을 했다. 중국을 제외하고 선진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제로금리 정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더해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현금살포와 저금리 환경은 결국 자산가격 상승으로 귀결되었고, 글로벌 증시와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파티의 수혜를 입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 달라진 시장 환경, 옥석을 가려야 할 때

하지만 2022년의 시장 환경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실시하며 금리인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았고,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견디지 못하고 브라질·멕시코·한국 등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했다. 이제는 위험 자산 시장에서 내가산 가격

S&P500 vs MSCI EM 지수



자료 인포맥스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선뜻 지불할 ‘더 바보 The Fool’를 찾기가 2021년보다 더욱 힘들어지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위험 자산, 특히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우량한 High Quality’ 자산이 어느 것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유동성이 축소되고, 기업의 마진이 줄어들며, 공급망 붕괴가 지속되어 기업이 제품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혁신을 통해 살아남고,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려 미래의 수익성을 높여 갈 수 있는 ‘경제적 해자 Economic Moats’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어느 주식시장에 더 많이 있을까?

### 여전히 주목해야 할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추적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

화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일까? 바로 ‘No Rules’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실리콘밸리의 경영 기법이 더욱 무서워지는 시기는 바로 2022년이 될 것이다. ‘얼굴책’이라는 한국말로 불리던 미국 대형 기술주의 사명이 하루아침에 ‘메타’로 바뀐 사례가 실리콘밸리 태생 미국 기업의 유연한 사고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형별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간 수익률 면에서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중상위권을 유지한 것은 역시 북미 주식이었다. 물론 이 기간 나스닥을 위주로 한 미국 기술주들이 시장의 중심에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편향성이 반영된 점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관점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주식들의 장기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밖에 없다. 메타버스, 우주산업, 백신, 블록체인, VR·AR, 자율주행 등 기술 테마들은 2022년에도 시장에서 각광받는 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유형별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표를 자세히 보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21년에만 해도 베트남 주식, 인도 주식을 샀으면 미국 주식보다 20% 정도는 더

벌었겠네”라고 하며 미국 주식보다 화끈한 신흥국 주식이 낫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최고의 수익률을 위해 주식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신흥국 주식에 올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유형별 주식형 공모펀드 수익률(%)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인도 주식 (38.6)	일본 주식 (12.5)	브라질 주식 (56.4)	아시아신흥국 주식(38.4)	브라질 주식 (4.2)	러시아 주식 (38.6)	아시아신흥국 주식(36.7)	베트남 주식 (44.0)
2	아시아신흥국 주식(14.1)	유럽 주식 (10.8)	러시아 주식 (48.1)	중국 주식 (35.6)	러시아 주식 (-5.4)	중국 주식 (32.5)	중국 주식 (33.7)	인도 주식 (43.7)
3	중국 주식 (13.4)	아시아태평양 주식(4.7)	유럽신흥국 주식 (25.4)	베트남 주식 (35.4)	<b>북미 주식 (-5.8)</b>	<b>북미 주식 (31.0)</b>	아시아태평양 주식(30.9)	<b>북미 주식 (25.3)</b>
4	<b>북미 주식 (13.4)</b>	글로벌 주식 (3.8)	동남아 주식 (12.2)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31.5)	글로벌 주식 (-9.7)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29.3)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26.1)	러시아 주식 (25.0)
5	동남아 주식 (8.6)	인도 주식 (3.4)	글로벌신흥국 주식(10.7)	인도 주식 (30.3)	인도 주식 (-11.8)	유럽신흥국 주식 (28.0)	<b>북미 주식 (22.4)</b>	유럽신흥국 주식 (19.5)
6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7.4)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3.0)	<b>북미 주식 (5.8)</b>	글로벌신흥국 주식(29.7)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12.1)	브라질 주식 (27.6)	글로벌 주식 (18.8)	유럽 주식 (16.0)
7	일본 주식 (6.7)	<b>북미 주식 (2.9)</b>	인도 주식 (2.0)	아시아태평양 주식(25.9)	동남아 주식 (-12.2)	유럽 주식 (26.0)	글로벌신흥국 주식(15.8)	글로벌 주식 (11.6)
8	아시아태평양 주식(5.8)	러시아 주식 (2.6)	유럽 주식 (1.4)	일본 주식 (24.5)	베트남 주식 (-12.3)	글로벌신흥국 주식(25.7)	베트남 주식 (12.5)	일본 주식 (6.6)
9	유럽 주식 (3.6)	아시아신흥국 주식(1.6)	글로벌 주식 (1.4)	<b>북미 주식 (20.0)</b>	유럽신흥국 주식 (-13.2)	글로벌 주식 (24.6)	인도 주식 (9.3)	동남아 주식 (5.7)
10	글로벌 주식 (3.5)	중국 주식 (1.1)	일본 주식 (-0.4)	글로벌 주식 (17.6)	아시아태평양 주식(-13.4)	아시아신흥국 주식(23.4)	동남아 주식 (8.4)	중국 주식 (3.4)
11	글로벌신흥국 주식(-2.3)	동남아 주식 (-7.6)	아시아신흥국 주식(-3.4)	동남아 주식 (16.7)	유럽 주식 (-13.6)	아시아태평양 주식(23.0)	일본 주식 (5.8)	아시아태평양 주식(2.4)
12	브라질 주식 (-13.6)	유럽신흥국 주식 (-8.2)	아시아태평양 주식(-4.4)	유럽신흥국 주식 (14.7)	글로벌신흥국 주식(-13.8)	일본 주식 (18.9)	유럽 주식 (-0.6)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0.6)
13	유럽신흥국 주식 (-26.9)	글로벌신흥국 주식(-10.7)	아시아태평양 주식(ex J) (-4.6)	브라질 주식 (13.8)	아시아신흥국 주식(-15.7)	인도 주식 (12.2)	러시아 주식 (-9.4)	글로벌신흥국 주식(-4.7)
14	러시아 주식 (-40.0)	브라질 주식 (-38.0)	중국 주식 (-9.6)	유럽 주식 (12.9)	일본 주식 (-17.1)	동남아 주식 (6.0)	유럽신흥국 주식 (-14.1)	아시아신흥국 주식(-7.4)

자료 삼성자산운용

## 2) 신흥국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변동성이다. 우리는 단순 수익률 위주로 주식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자산 시장의 증장기 수익률을 결정짓는 수익률은 위험 대비 수익률(Risk/Reward Return)이다. 앞서 살펴본 수익률 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2016년 1등을 한 브라질 증시는 2017년 13등으로 내려앉았고, 2019년 1등을 한 러시아 주식도 2020년 13등, -9.4%의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선진국 증시의 낮은 변동성, 적절한 수익률과 신흥국 증시의 높은 수익률-높은 변동성은 대조적이다.

물론 초고위험 투자 성향을 가진 초공격적인 투자자의 경우 신흥국 증시에 올인하는 것도 높은 수익률을 올려려는 도전적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높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시기, 즉 보통 글로벌 자금 시장이 경색되거나 지정학적 위험,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재

난이 닥쳐 올린 자산이 급락할 때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자산이나 유동성이 풍부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혹시 높은 수익률을 위한 레버리지까지 활용했다면 단박에 큰 손실로 마진콜을 당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과연 이러한 변동성까지 감내할 만큼 신흥국 증시가 매력적일까?

### 신흥국 대표 주자 중국 증시, 반등의 기회 있을까

2022년 신흥국 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할 열쇠도 중국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인 예상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고 난 이후인 내년 3분기에 중국 증시도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교육 업체와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대형 기술주들은 뉴욕 증시 상장 폐지 여부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2022년에도 한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흥국 증시의 반등 여부에  
한국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정부 규제와 이전 상장 이슈 등이 해결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중국 주식들의 반등 여부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린 투기적 움직임은 중간중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마켓 타이밍은 일반 투자자가 노릴 만한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 3)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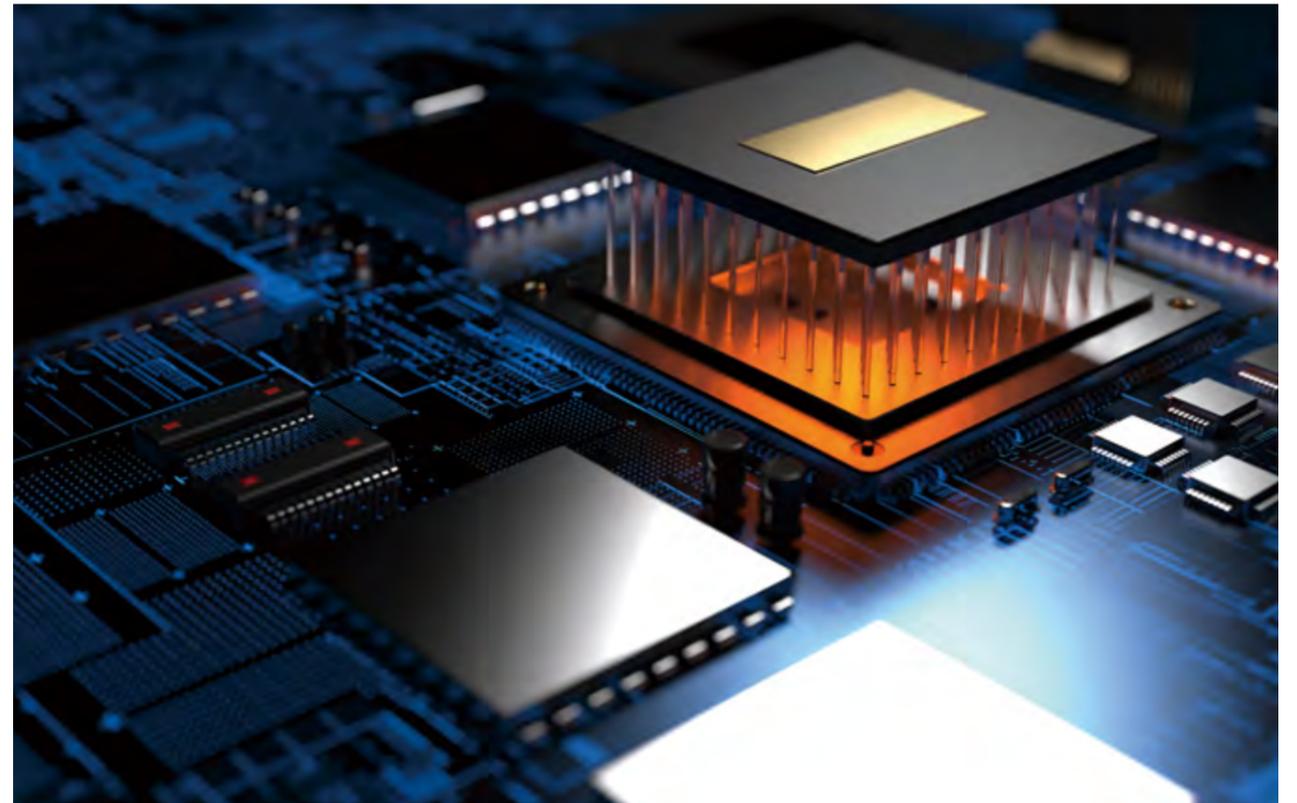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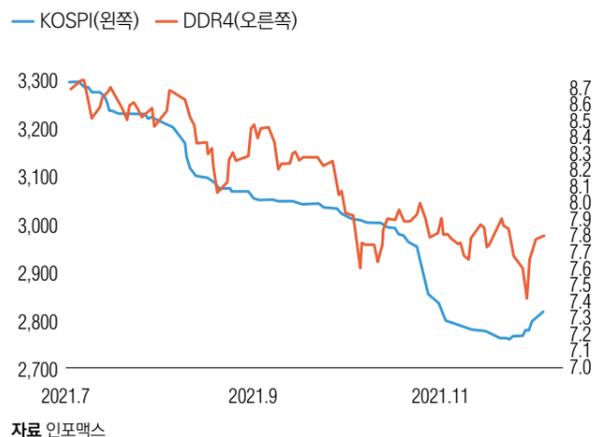
2022년 한국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될까? 2021년 11월 수출액 600억 달러를 넘어선 한국은 무역 규모에서 세계 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미 한국의 무역 규모만 보면 선진국 중에서도 핵심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MSCI 기준으로 여전히 신흥국 지수 내의 한 자리에 묶여 있다. 일단 2022년에도 한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신흥국 증시의 반등 여부에 한국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결국 2022년 신흥국 증시의 반등, 쉽게 생각해보면 홍콩 증

시의 반등세에 연동된 한국 증시의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가시화된다면 한국 증시에 대한 시각도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한국 주식시장

한국 증시의 내부적인 기대 요인도 충분하다. 일단 한국 증시는 싸다. 신흥국의 여러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 증시는 추가수익률이 10x 수준으로 이익 대비싼 구간에 들어 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싸 것을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반면, 싸 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은 것이 문제다. 일종의 모멘텀이 가시화되어야 한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도드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한국 증시를 짓누른 것은 국내 증시의 대표 격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시각이었다. 2021년 하반기 D램 현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현물가격 하락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사업부 실적에 부정적 업종 환경인 것은 맞으나, 실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우려한 것보다는 긍정적인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으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기를 과시했다.

반도체 현물가격과 코스피 지수



12월 초에 들어서는 D램 현물가격이 7일 연속 상승하는 등 일부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서 두 업체의 주가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도체 산업 내부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신흥국 증시 반등 상승 모멘텀의 1이 될 수 있는 요소다.

한국 증시가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 있기는 하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협에의 노출,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바로미터, 글로벌 쇼크 발생 시 현금 인출만 하는 외국인의 높은 비중, 낮은 배당 성향의 후진적 지배 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MSCI Quality 국가별 지수를 기준으로 EM 지수의 향후 12개월 PER 18.13 대비 Korea Quality 지수는 10.75x로, 약 40.7%의 할인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인데 조금 하자가 있다고 해

도, 40% 정도 깎아주면 살 만한 것이 한국 증시라는 제품이 아닐까?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도시의 중심가에 기아의 포터 1톤 전기 트럭(없어서 못 파는 2021년의 히트 전기차 상품이다)을 몰고 가서 "떨이요~ 떨이~"를 외쳐보고 싶은 한국 증시의 2022년이다. ●



윤세욱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투자전략팀 애널리스트



# 가업 승계 세금 특례 어떤 기업이 활용할까

기업의 가업 승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가업 승계 세금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활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하는지 알아보자.

Writer: 양창우(우리은행 TAX컨설팅센터 세무자문역) Photo: 셔터스톡

새해가 밝아오는 1월이면 굳은 결심을 한 뒤 운영 중인 가업을 승계해주려 하지만, 세금 부담과 복잡한 절차로 차일피일 미루다 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처럼 세금이 부담되는 데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도 언젠가는 피땀 흘려 일군 가업을 세금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물려줘야 할 때가 올 것이다.

## 가업 승계의 장애물, 세금

기업인이 가업을 승계할 때 가장 큰 장애로 느끼는 것은 세금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가

업 승계 시 세금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 통계를 보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2020년 전체 상속·증여 결정 건수 19만3,680건 중 증여 222건, 상속 106건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면 상속은 최대 500억원, 증여는 100억원까지 세금이 없거나 적은 부담액으로 가업을 승계할 수 있지만, 특례를 신청하는 기업은 예상외로 많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업승계 상속 특례를 적용받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인 중 약 66%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사후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오히려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약 59%가 주된

가업 승계 증여 특례 vs 상속 특례 비교

구분	증여 특례	상속 특례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세 이상의 부모</li> <li>증여일 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가업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분 50%(상장 30%) 이상 10년 보유</li> <li>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li> </ul>						
요건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 거주자</li> <li>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li> <li>5년 내 대표이사 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 거주자</li> <li>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li> <li>2년 내 대표이사 취임</li> </ul>					
	기업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개인사업자 적용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li> </ul>					
과세 특례 내용	{주식 평가액(한도: 100억원)~5억원} × 세율* *세율: 10%(30억원 초과 20%)	상속 공제액						
		<table border="1"> <thead> <tr> <th>기업 경영 기간</th> <th>공제액</th> </tr> </thead> <tbody> <tr> <td>10~20년</td> <td>200억원</td> </tr> <tr> <td>20~30년</td> <td>300억원</td> </tr> <tr> <td>30년~</td> <td>500억원</td> </tr> </tbody> </table>	기업 경영 기간	공제액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기업 경영 기간	공제액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500억원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 관리 기간: 7년</li> <li>가업 종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며, 주된 업종 변경 금지(제한적으로 허용)</li> <li>지분 감소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후 관리 기간: 7년</li> <li>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 20%(5년 내 10%) 이상 처분 금지</li> <li>가업 종사: 대표이사로 종사하며, 주된 업종 변경 금지(제한적으로 허용)</li> <li>지분 감소 금지</li> <li>고용 인원 유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인원(혹은 급여액)이 기준을 이상</li> </ul>						



가업 승계 방식으로 '일부 증여 후 상속'을 선택했는데, 까다로운 특례 요건을 충족하기보다 적절한 세 부담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세금 특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가업을 승계할 때 생전이든 사후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특례를 포기하고 있다. 기업이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 요건은 상속 특례 적용 시 지켜야 하는 업종 변경 금지와 고용 인원(또는 총급여액) 유지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2세 경영인이 유연한 기업 조직으로 변화에 대응해

야 하나, 사후 관리 요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부 선대 경영인은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이 후대 경영인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기업을 청산해 자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거나, 부담스러운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해주기도 한다.

증여 특례의 사후 관리 요건은 상속 특례보다 간소하지만, 추후 상속세 정산 시 실익이 없어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추후 상속 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지만,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10년이 지나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한다. 기업은 어차피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기에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세금이 연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해 과세 특례를 포기하는 것이다.

“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까? 첫 번째로, 다른 기업에는 제약인 요건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기업이다. 두 번째로, 사업 확대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

### 어떤 기업이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세금 특례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세금 특례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까? 첫 번째로, 다른 기업에는 제약인 요건을 제약으로 여기지 않는 기업이다. 7년이라는 사후 관리 기간은 일반 기업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수입이 안정적이며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기업엔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대째 내려오는 맛집의 경우 100년 이상 유지해온 기간 대비 7년의 사후 관리 기간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긴 시간은 아닐 것이며, 사후 관리 기간 중 유지해야 하는 업종과 고용 인원 등 유지 요건도 수월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승계받는 자녀의 사업 확대 의지가 있는 기업이다. 기업이 사양 산업이라든가 자녀가 신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업 승계를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선대보다 사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기업은 증여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증여 특례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기간과 상관없이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로 정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합산할 때 기업의 가치는 상속 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장점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기업 가치가 30억원이지만

자녀가 상속 시점까지 100억원의 기업으로 만든다면 70억원에 대한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업이 대를 이어갈수록 번창하는 기업이라면 세금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왜 가업을 승계할 때 세금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지, 반대로 어떤 기업이 신청하는지 알아보았다. 세금 특례는 모든 기업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유효리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세금 특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가업을 승계하는데, <TWO CHAIRS> 매거진 다음 호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업 승계 시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절세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





# 2022년 부동산시장은 변곡점을 맞을까

지난해 상반기 뜨거웠던 부동산시장이 하반기에는 다양한 규제 강화와 함께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2022년 부동산시장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주택뿐 아니라 다양한 수익성 부동산까지, 2022년 부동산시장을 전망해본다.

Writer: 박상욱(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 Photo: 셔터스톡

2021년 자산 시장의 키워드는 '코로나19'와 '유동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지난 2년의 팬데믹 시기는 투자의 적기였고, 투자 성패 또한 투자를 실행한 자와 실행하지 못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그만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 실행 여부에 따른 부의 양극화가 심화했다.

## Part1. 주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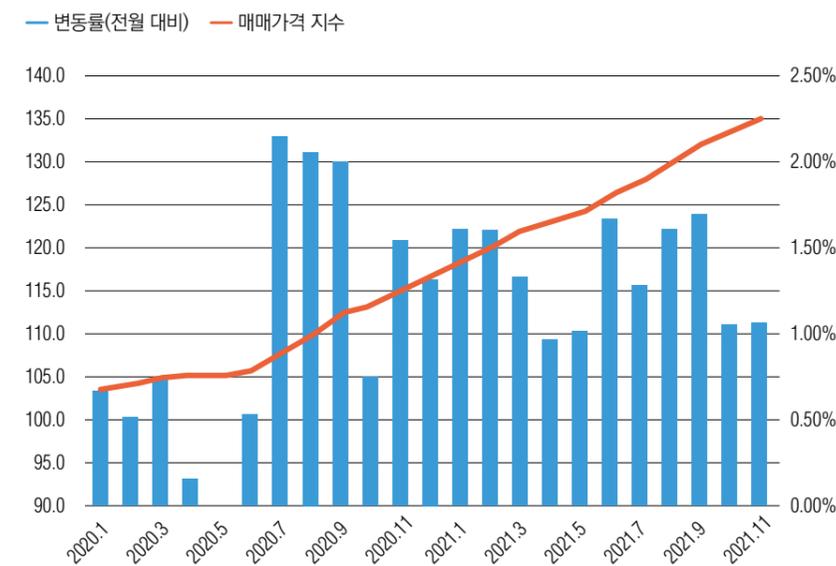
### 2021년: 공급 부족과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격 상승

지난해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1~11월) 상승률은 19.43%, 서울은 15.86% 상승했다.

2021년 아파트 가격(11월 기준)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인천과 경기 수도권으로 22.43%나 상승했다. 인천 연수구는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개발 호재가 있는 시흥이 38.4% 상승하고, 수원·안산·부천 등도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너무 높아진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인근 수도권으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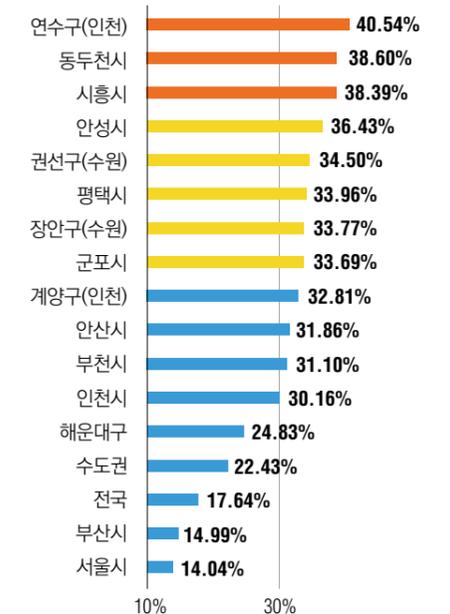
이 같은 주택 가격 상승에는 개발 호재도 한몫하지만, 무엇보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21년 수도권 입주 물량은 11만9,000호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이다. 여기에 20~30대 MZ세대까지 주택 매매시장에 뛰어들면서 공급 부족을 가중했다. 공급 확대 정책(2·4대책)을 발표한 후 3월에서 5월까지 일시적 시장 안정이나 2020년 45% 상승한 세종시와 대구시가 입주 물량 급증으로 2021년 하락세로 반전하는 사례가, 물량 수급이 주택 가격의 주요 원인을 입증해 준다.

서울 APT 매매가격 추이



자료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상승률 상위 지역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 부담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여력 축소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로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가격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

### 2022년: 대출 규제 vs 공급 물량 부족

2021년 하반기에 서울 지역은 전례 없는 거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거래량이 월 3,000건 밑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2018년 9·13대책에 따른 거래량 감소 이후 처음이다. 이번 거래 감소는 장기간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보유세 부담 증가의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2년에도 더욱 강화된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sup>DSR</sup> 적용과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은 이미 수차례 발표했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직접적 매매 자금은 차단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우회 통로로 매매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해에 예정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포함되면 매매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은 금융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신규 주택 공급 물량 확대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2022년 입주 예정 물량은 전국 30만8,000호로 전년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물량은 아니며, 특히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4만4,000호로 공급 물량 부족 이슈는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2년 주택시장은 신규 공급 물량 부족 등 시장 매물 부족 이슈와 투자자들의 긍정적 투자 심리가 지속되겠지만,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과세 부담 증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 여력 축소, 미국 자산 매입 조기 종료(3월)와 6월 첫 금리인상(예상) 등 시장 유동성 축소 전망에 따른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로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가격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택자의 세금 규제와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축소가 주요 골자인 7·10대책 이후 빌딩 거래량이 2배 이상 급증하는 추이가 관찰된다. 이후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중소형 빌딩 시장의 투자 열기는 주택시장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강남 3구는 물론 서울 전역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매물보다 매수세가 급등하면서 매도자가 가

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절대적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중소형 빌딩 투자 수요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실물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주택과 다르게 중소형 빌딩에 대한 대출 규제는 예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투자 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면서 중소형 빌딩의 가격 상승 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중소형 빌딩의 투자 목적이 임대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1~2회의 추가 금리인상에도 가격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Part2. 수익성 부동산시장

### 중소형 빌딩 시장 상승세는 지속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중소형 빌딩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되었다. 특히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 가격이 20억~30억원까지 오르면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 한 채 매각 자금으로 꼬마 빌딩을 손쉽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리얼티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다주

중소형 빌딩 분기별 거래량(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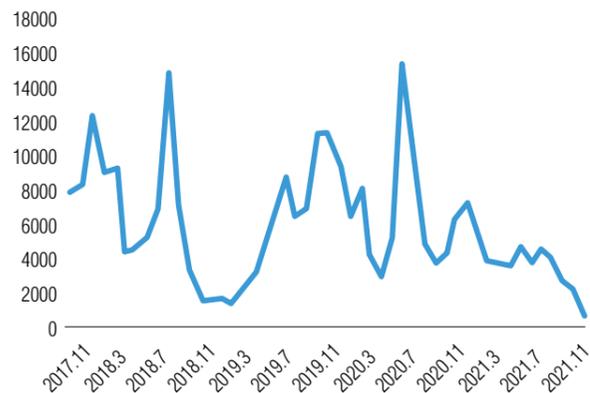


자료 리얼티코리아

###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 감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 수요도 증가했다. 특히 아파트 신축 공급량 둔화에 따른 대체 상품으로 인식되고, 전매 제한과 청약가점 그리고 재당첨 제

서울시 아파트 거래 건수



자료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한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로운 부분이 투자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보다 수도권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 폭이 가팔랐다. 인천 지역 오피스텔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10월 기준) 대비 3.96%, 경기도는 3.06% 상승해 서울의 1.33%와 비교하면 3배 정도 상승했다. 다만 연간 상승률이 두 자릿수인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 상승 폭은 크지 않다. 2022년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오피스텔 가격 상승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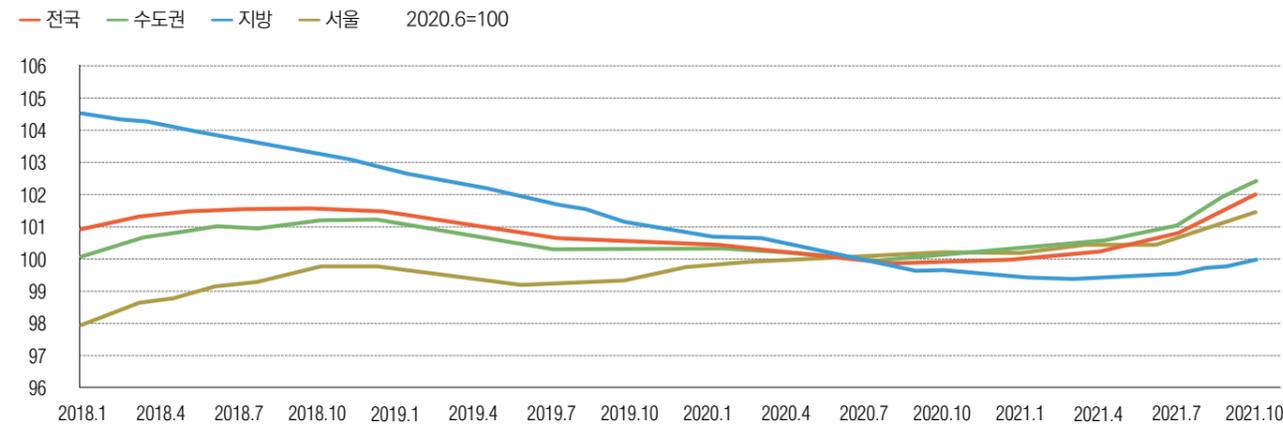
2021년에는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인식되는 생활형 숙박 시설에도 투자 수요가 몰렸는데, 오피스텔과는 다른 상품임을 인지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님에도 현재 가치는 숙박 시

설이 아닌 오피스텔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 둔화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되는 상품이 생활형 숙박 시설이다.

### 준공업지역 & 도심 단독주택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

준공업지역은 서울 부동산 용어 사전에 따르면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기능·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성수동과 구로구, 영등포구 등이 대표적 준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 공장 지역이라 기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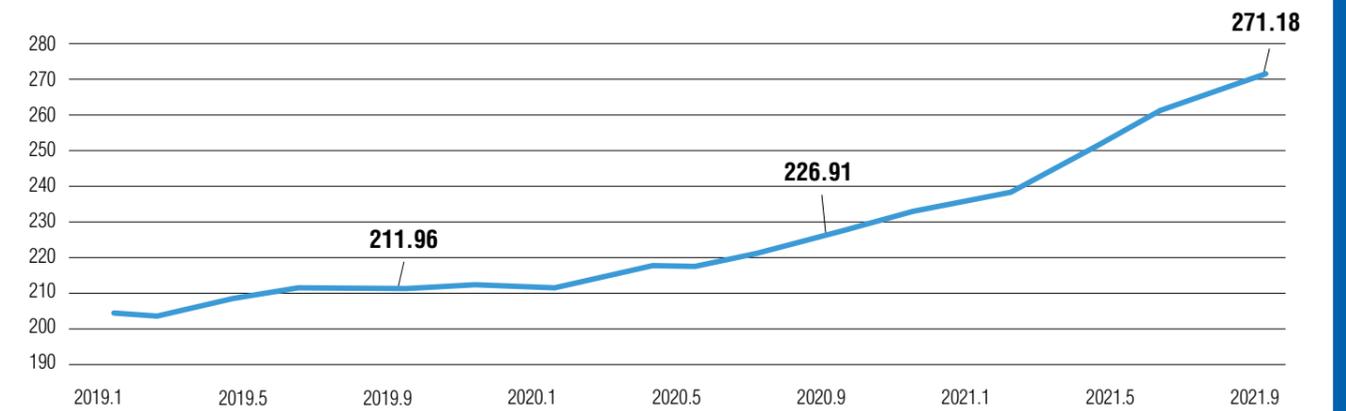
###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 추이



지역	매매가격 지수 및 변동률					
	2021년 8월		2021년 9월		2021년 10월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전국	101.15	0.37	101.59	0.43	101.96	0.37
수도권	101.50	0.40	102.02	0.51	102.45	0.42
지방	99.74	0.22	99.82	0.08	99.97	0.15
서울	100.84	0.25	101.17	0.33	101.50	0.32

자료 한국부동산원

### 미국 주택 가격 지수



자료 S&P Dow Jones Indices LLC

이었지만, 도심 내 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주거와 상업 기능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며, 주거·오피스·판매 시설 등 각종 개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수요가 폭증하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은 물론, 향후 부족한 도심 주거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와 투자 수요 확대에 해당 지역 토지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주요 지역의 단독주택은 중소형 빌딩(꼬마 빌딩) 개발 수요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 도시형 생활 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도심 소형 주택 활성화 대책으로 역세권(500m) 주변의 단독주택까지 개발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

2022년, 큰 폭의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투자처는 바로 해외 부동산이다. 과거 2년간 사실상 해외로 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억눌려 있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2022년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점점 강

화되는 국내 주택 투자 시장 규제와 중소형 빌딩 가격 급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물론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주요 투자 국가의 부동산 가격도 국내 못지않게 상승한 부분은 투자에 부정적 요소지만, 다양한 지리적 투자 상품, 분산투자 효과와 달러 자산 투자 효과에 대한 기대는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참고로, 미국 주택 가격은 지난 1년간(2021년 9월 기준) 19.51% 상승해 동기 대비 국내 아파트 시장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

박상욱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



## Q&A로 풀어본 법률 조기 증여, 안전하게 할 수 있나요?

자산가들의 노후 고민 중 가장 큰 부분은 증여에 대한 것이다.  
 자산을 어떻게 승계해줘야 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증여 후  
 자녀들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를 냉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재산 증여 시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방법은 없을까?

Writer: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 Photo: 셔터스톡

**Q**  
 자식들이 재산을 탕진할까  
 봐 걱정돼요.

저는 재산의 일부는 좋은 일에 사용하고 나머지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다만 자식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금방 탕진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지인이나 기관에 맡긴 뒤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익단체와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는 신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의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국내에서도 가능한지요.

**A**  
 신탁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해주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상속 신탁 제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의 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자를 지정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신탁을 이용하면 굳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신탁 계약으로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진 돈,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해 생전 및 사후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의도한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신탁하고 부모가 정한 비율대로 공익단체와 자녀가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속 신탁의 가장 큰 이점은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재산승계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재산을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신탁을 이용하면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해주면서도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로부터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하므로 원칙상 위탁자와 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 신탁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상속 신탁은 형태가 다양한데, 생전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 시 신탁이 설정되는 방법(유언 신탁)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신탁을 설정하면서 살아 있을 때는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고, 사망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은 살아 있는 동안 신탁에서 나온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켰으며, 사망 시 유산의 20%를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유산의 50%는 어머니에게 돌아가도록 분리해 운영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사망 후에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신탁을 설정해 거액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이 사망한 후 배우자와 자녀가 수익자가 되게 하고, 그 후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하면 손주가 연속해 수익자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Q 효도 계약서를 아시나요?

자식이 성년이 되면 자립해서 살길 바라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선 성급하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자식이 불효하는 바람에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하며, 이른바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더군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A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 “자식에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무서워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웬지 모를 씁쓸함이 납니다. 민법은 증여 계약의 무상성을 고려해 증여 계약에 특수한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 민법 제556조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는 이런 민법상 조건부 증여 법리를 차용한 부모와 자식 간 계약을 말합니다.

실제로 부모가 아들에게 2층 주택과 대지를 증여하면서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한다. 아들은 위 부담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모님의 계약해제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그 후 아들이 자신들을 충실히 부양하지 않자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 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 부부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해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재판에서 원고인 부모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증여 당시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도 계약서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부양의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녀가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하며 증여한 재산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이런 효도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이 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를 상대로 패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과거의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 같은 입법적 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단색화 열풍 이후와 MZ세대 견인하는 김수수의 신념

미술 시장도 유행을 탄다. 당연히 아트테크도 마찬가지다. 한 시대의 유행을 주도하는 트렌드는 유입되기도, 만들어지기도 한다. 2010년 초반에 시작된 단색화 바람이 외부 유입이었다면, 2020년 전후의 MZ세대 붐은 자생적이다. 과연 광란의 혼란스러움에서 젊은 작가에겐 어떤 신념이 필요할까? MZ세대 김수수 작가의 거꾸로 신념을 만나본다.

Writer: 김윤섭(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

**작가 소개** 김수수(1993~) 작가는 중국 베이징의 중앙미술대학 유화과와 뉴욕 뉴저지 미술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2019년 1월에는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치렀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2018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2018 안산 단원미술제 본상, 2016 홍군대장정 80주년전 3등상(중국 베이징 중국미술관), 2014 제4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 대상 수상, 2002 제5회 전국학생사생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이 있다. 현재는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한동안 '단색화 열풍'이 뜨겁게 불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 미술 시장에도 100억원 넘는 작품이 탄생했다. 이젠 10억~20억원 작품에 놀라는 사람도 별로 없다. 고가 미술품에 면역이 생긴 것이다. 단색화 열기 덕분이다. 국내 미술 시장의 단색화 붐은 해외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해외의 경우 말 그대로 미니멀리즘<sup>Minimalism</sup> 혹은 모노크롬 페인팅<sup>Monochrome Painting</sup> 전문 작가 중심이었다. 반면, 한국은 김환기 화백처럼 꼭 단색화만 그리지 않아도 '단색조<sup>單色調</sup> 회화'까지 포함하는 성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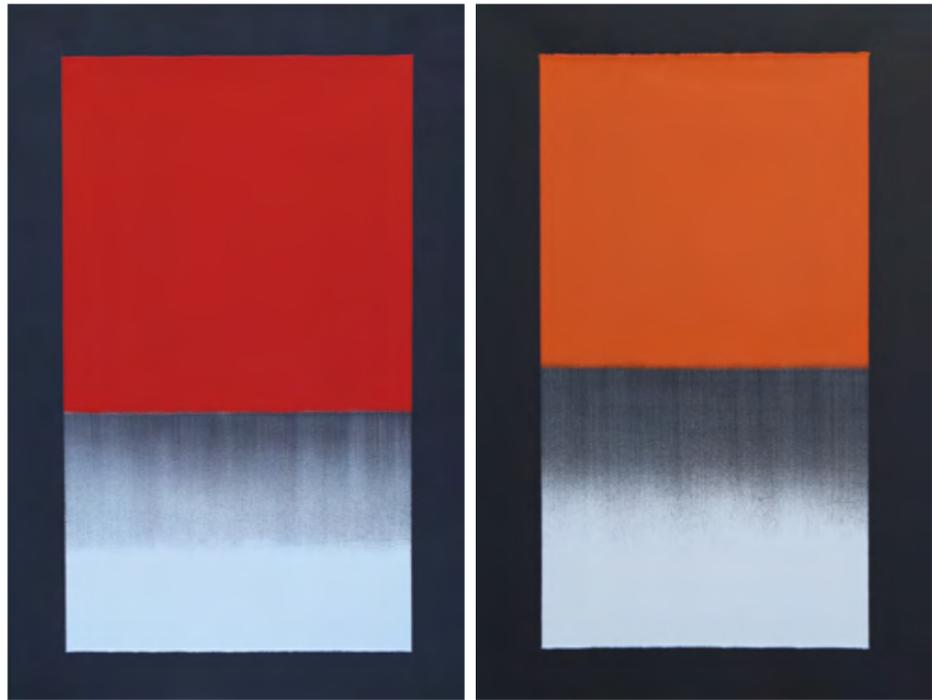
단색화는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일 현대미술의 단면>을 기획한 미술평론가 윤진섭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단색화>전을 계기로 단색화 영문 표기를 'Dansaekhwa'로 고유명사화해 지금에 이르렀다.

한국의 단색화가 해외의 모노크롬 페인팅과 차별화된 감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젠 'Dansaekhwa 단색화'가 공식 세계 미술 용어로 통용된다. 한참 동안 침체기를 겪은 국내 미술 시장도 단색화 열풍으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포스트 단색화'라는 용어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전 같지는 않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미술 시장의 '세대교체 시즌'이 꼽힌다. 갤러리 운영진도 빠른 속도로 2~3세대로 교체되고 있지만, 수요층의 연령은 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른바 MZ세대의 핫한 출현이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 주요 수요층으로 떠오른 MZ세대

MZ세대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 주축이다. 아날로그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감성을 지녔다. 이들의 투자 방식이나 소비 풍조를 면밀히 분석하려는 노력이 각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안정 요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MZ 문화의 출현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점이다. 특히 디지털의 일상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유념해야 할 뉴 콘텐츠 기회를 선사해주리라 기대한다. 그렇다면 MZ세대 미술가는 어떻게? 이들 역시 새로운 감각만을 좇을까? 기성 세대의 상징적 화풍으로 대세를 이루던 단색화와 전혀



다른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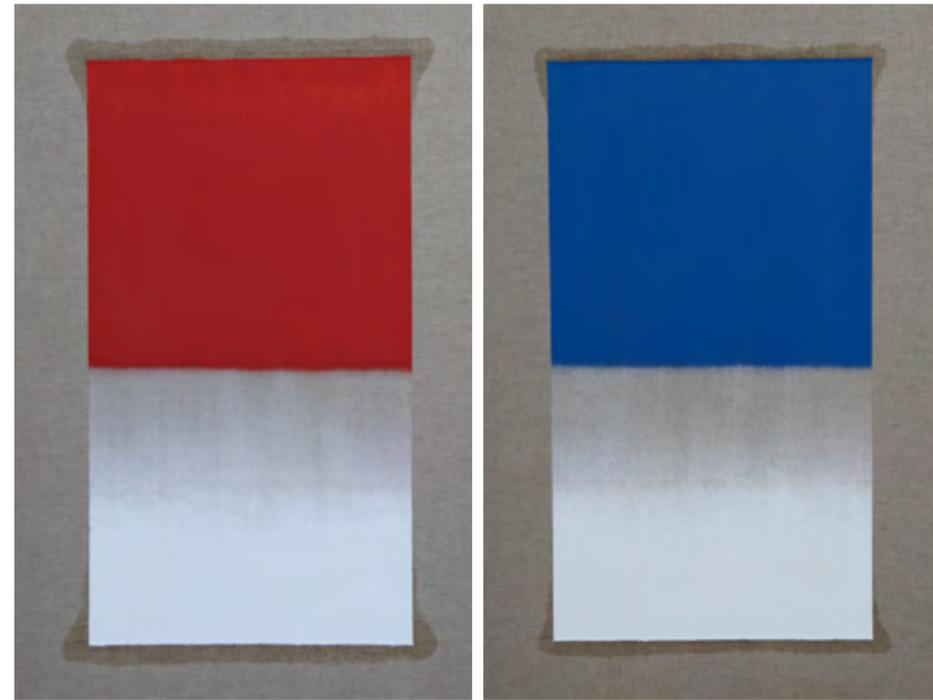
1993년생 김수수 작가의 경우 오히려 자신만의 신념과 감각으로 단색화풍 작품을 쉽게 천착하고 있다. 실제로 단색화 열기 덕분에 작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불과 2년 전 300만~350만원 하던 30호(90.9×72.7cm) 크기가 지금은 600만원 선이다. 얼핏 여느 단색화의 연장선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알고 나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수수 작가는 등장부터 '20대의 무서운 신에 회화작가'로 통했다.

25세이던 2018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이듬해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치렀다. 지극히 한국적 미감의 오방 색조를 선보이지만, 미술 공부 는 베이징과 뉴욕에서 했다. 흥미로운 점은 구상과 비구상 작품을 넘나드는 광폭의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군 복무 기간이던 2014년에는 제4회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에선 구상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현재의 채색 추상화로 보이는 작품도 출발점은 구상적 모티브다.

### 익숙함에 새로움을 덧입혀 트렌드 견인

2017년 중순 우연히 한 일간지 신문 기사에서 '화면을 꽉 채울 만큼 엄청난 불길을 마주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 계기였다. 무작정 사진 속 용광로 작업장을 찾았다.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어느 순간 손을 멈췄다. 바로 눈앞에서 단단하던 쇠덩이가 물처럼 녹아내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장면이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마치 온갖 아픈 감정마저 치유해주는 듯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불빛에서 삶의 모습을 만난 것이다.

이후 용광로 불빛에 인생사를 함축하는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김수수의 '불' 시리즈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용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의 기운이 연출하는 오묘한 실루엣을 온전히 화면으로 옮긴 작품이다. 특히 대형 화면에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되거나, 서로 다른 색조가 긴장과 이완으로 조우하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인위적인 시각 효과보다 최소한의 간섭과 절제된 화면 구성을 만



들어내는 채색 기법이 김수수 화법의 핵심을 이룬다. 또 다른 특징은 최소한의 회화적 터치를 살린 평면성이다. 유화물감으로 기본 밑칠을 하고, 붓에 물을 문혀 얇게 쓸어내리며 펴는 작업을 수십 회 반복한다.

### 광폭의 작품 세계

유성물감과 수성인 물의 자연스럽고 극적인 반발 작용을 활용한 결과다. 색을 올리고 건조하는 과정을 며칠 동안 반복해 일정한 두께와 질감을 얻는다. 이때 중요한 점은 견고한 밑바탕 칠 위에 최종 색감층을 올릴 때 '한 번의 붓질'로 쓸어내려 완결하는 것이다. 대략 10호(53×45cm) 이하의 소품이든, 100호(162×130cm) 이상의 대작이든 예외는 없다. 화면 전체를 한 번의 붓질로 덮는 '전면일필법(全画面筆法)'은 김수수의 작품을 지명하는 근간이다. 일필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편한 붓 여러 개를 나란히 붙인 특수한 붓을 자체 제작해 사용한다.

'불' 연작은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만의 숙련

되고 노련한 마무리 덧칠 기술로 완성한 결과물이다. 특히 흑과 백, 물과 불, 음과 양 등 상반된 '극과 극의 하모니'를 시각화하는 데 용이한 수단이다. 이러한 극점의 조화로움으로 김 작가가 추구해온 화두(課題)는 '몰이(沒我)'다. 이는 삶의 희로애락에 스민 다양한 감성을 관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단단한 쇠조각이 불을 만나 물처럼 본연의 형태를 벗어버리듯, 동시에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수행 과정'을 녹여내고 있다. 단번에 한 붓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견고한 채색 기법, 백색과 흑색을 주조로 한 단색조의 검박함, 인위적인 시각 효과보다 단색조 회화가 지닌 최소한의 절제미, 흑백이나 물불 혹은 음양처럼 상반된 극점의 조화를 지향하는 점...

결국 김수수 작가에게 구상이나 비구상, 재료나 기법, 시대와 트렌드의 변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일까, 김수수 작가의 작품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한다 We may see the same thing, but think differently"는 격언을 절로 떠오르게 한다. ●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TWO CHAIRS>에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반영해 나날이 발전하는 <TWO CHAIRS>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WO CHAIRS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자유롭게 즐기세요.

TWO CHAIRS 온라인 웹진  
www.wooribank.com → 전체 메뉴 → 투체어스PB → TWO CHAIRS 웹진  
TWO CHAIRS 모바일 웹진  
스마트폰으로 위쪽 QR코드 스캔

<TWO CHAIRS>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에 참여해주세요. <TWO CHAIRS>에 대한 만족도와 매거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해 설문 조사에 접속한 후 양식에 맞게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후 제출까지 누르면 참여 완료입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QR코드 촬영 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참여 기간** 2022년 1월 7일(금)~2월 18일(금)

**당첨자 안내** 개별 통보

- ※ 당첨자에게는 선물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 ※ 잘못된 개인 정보 입력으로 인해 당첨자에게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상품이 반송될 경우 재발송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재고 수량에 따라 상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pecial Gift



보이스캐디 A1  
3명

### 우리금융그룹

우리 아이

우리 할머니

우리 동네

우리 아빠

## '우리'라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이 되기 위해

#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1888년 <반 고흐의 의자> 반 고흐작



1888년 <고갱의 의자> 반 고흐작

## 반 고흐, 두 개의 의자

흠모하던 고갱을 위해 두 개의 의자를 그렸던  
반 고흐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은행 TWO CHAIRS가  
당신을 위한 두 개의 의자를 준비합니다

한결 같은 신뢰로 오직 당신만을 위해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은 물론 세무, 부동산, 투자 분석까지  
우리은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드리는 자산관리 서비스와 만나십시오.

- ◆ 자산관리 전문가그룹 주식·채권투자, 리스크, 경제전망,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산관리 상담 서비스
- ◆ 세 무 전문가그룹 절세(양도, 소득, 상속) 방안과 지방세·간접세·법인세 관련 상담, 세금 관련 상담 서비스
- ◆ 부동산 전문가그룹 부동산 시장 분석, 개발 타당성 및 가치 제고 컨설팅, 부동산 매매 등 상담 서비스